



주간 통일정세

2010-19

Contents

- >> I. 북한동향 1. 대내정세 2. 대외정세 3. 대남정세
- >> II. 동북아정세 1. 대북한 관련 2. 주변국 관련

주간통일정세는 북한 및 국내외 언론보도를 참조하여 작성된 것임.



I. 북한동향

1. 대내정세

가. 정치

- **北, 김정은 기념우표 발행 계획(5/4, 자유아시아방송(RFA))**
 - 북한이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후계자로 알려진 3남 김정은에 대한 기념우표 발행을 계획하고 있다고 RFA가 최근 방북 취재활동을 했던 독일의 대외 공영방송인 '도이치벨레'의 페터 쿠야트 동아시아 특파원의 말을 인용하여 보도
 - 지난달 21일부터 23일까지 '조선(북한)-독일우호협회' 주선으로 북한 취재에 나섰던 쿠야트 특파원은 이 방송과 회견에서 "조선우표사 부국장이 유력한 후계자로 알려진 김정은 기념우표의 발행 계획에 대해 확인해 줬다"며 "여러 가지로 종합해 볼 때 북한 측이 김정은 후계 문제를 공표하려고 준비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함.
 - 그렇지만 조선우표사 부국장은 기념우표의 발행시기와 관련, "시간이 걸린다"면서 언급을 피했고, 김정은 승계에 관한 질문에 대해서도 '우리는 그에 관해 이야기하지 않는다'고만 답했다"고 쿠야트 특파원은 밝힘.
- **김정일, 대청해전 직후 '바다의 결사대'강조(5/5, 조선중앙TV; 조선중앙통신)**
 -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작년 서해 '대청해전' 직후 서해함대사령부를 시찰하면서 전투함선에 직접 승선, 무기와 전투기술의 현대화를 지시한 것으로 확인돼 주목
 - 조선중앙TV는 78주년 '건군절'(인민군 창설일 4.25)을 기념해 4일 밤 장성과 장교 등 여러 군인들이 출연한 '텔레비전 기념무대'를 지난달 25일에 이어 재방영함.
 - 서해함대사령부 군관(장교) 김광일은 무대에 올라 "어둠이 가시지 않은 이른 새벽에 부대를 찾아 정박한 함선에 오르신 최고사령관동지(김정일)께서는 함선의 무기, 전투기술기재들을 현대전의 요구에 맞게 더욱 현대화하라는 가르침을 주셨다"고 밝힘.
 - 특히 김광일은 당시 김 위원장이 다른 함선에도 올라 해군들의 훈련을 지켜본 뒤 "동무들은 내가 왜 이 부대에 자주 오는지 아는가. 그만큼 최고사령관의 믿음이 크기 때문이다. 앞으로 훈련을 더욱 강화해 바다의 결사대 영웅들로 준비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고 전함.
 - 이어 그는 "작년 말 북방한계선 고수를 운운하며 날뛰던 6척의 적(남한) 함선 무리를 징벌했다"며 대청해전 승리를 재차 주장



- 육·해·공군 훈련에 참석했던 포병부대 지휘관 정상환은 “당시 우리 포병들은 하룻강아지 범 무서운 줄 모르고 날뛰는 적들을 불바다 속에 처넣어 잿가루로 만들 기상을 안고 훈련이 시작되자마자 나타나는 목표들에 무자비한 명중 불벼락을 퍼부었다”고 말함.
- 이어 “국방공업의 위력을 과시하며 대구경포들이 연방 불줄기를 뽑었고 비행기, 함선들이 적 집단에 화력 타격을 진행했는데 생명체라고는 개미 새끼 한 마리 살아남지 못할 무자비하고 섬멸적인 타격이었다”면서 “우리의 선언이 결코 빈말이 아니며 진짜 전쟁맛이 어떤가를 보여주는 무지막강한 강군의 위력을 만천하에 과시한 일대 시위였다”고 주장

● 北김정일, 방중 후 첫 공개활동…공연관람(5/9, 조선중앙통신)

- 중국 방문(5.3~5.7)을 마치고 귀환한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국립연극단의 경희극(輕喜劇) ‘산울림’을 다시 관람했다고 북한의 언론매체가 보도
- 김 위원장의 이번 공연 관람은 방중 후 첫 공개활동이며, 앞서 지난 달 27일 북한 매체들은 김 위원장이 이 공연을 관람했다고 보도한 바 있음.
- 조선중앙방송은 “김정일 동지께서 극장 관람석에 나오시자 전체 관람자들은 만세의 환호를 올리면서 수 천리에 달하는 먼길을 오가시며 불철주야의 정력적인 대외활동을 벌이시어 조·중 친선의 강화 발전의 공헌을 하신 장군님께 가장 뜨거운 축하의 인사를 드렸다.”라고 전함.
- 경희극 ‘산울림’은 식량증산과 농촌발전을 위해 헌신하는 산간지대 농민들의 활동을 주제로 1960년대 창작된 작품으로, 이번에 국립연극단이 재창작함.
- 김영춘 인민무력부장, 김정각 군 총정치국 제1부국장, 리영호 군 총참모장, 노동당의 최태복·김기남 비서와 김경희(경공업)·장성택(행정)·김영일(국제)·김양건(통일전선) 부장, 강석주 외무성 제1부상이 수행

[김정일 訪中 관련]

1) 김정일 국방위원장 訪中 확인 행로

● 5월 3일(월)

- 오전 5시 20분, 단둥(丹東)을 통해 중국에 넘어옴.
- 오전 10시 40분, 다롄(大連) 도착, 푸리화(富麗華) 호텔을 투숙지로 잡음.
- 오후 2시, 6시(방추이다오에서 중국 측 주최의 환영 만찬에 참석한 것으로 보임), 9시(갑자기 호텔에서 나와 밤바다 구경을 한 뒤 40분



만에 들어감) 등 3차례에 걸쳐 외출

● 5월 4일(화)

- 오전 9시 30분, 푸리화(富麗華)호텔을 떠나 30km 떨어진 다렌경제기 술개발구에 도착. 이곳에 건설 중인 제3부두(40만m² 규모의 이 3호 부두는 컨테이너 적재, 보세물류, 자동차 선적 등을 하는 부두)를 시찰
- 오전 11시, 호텔로 돌아옴.
- 오후 4시, 베이징으로 가기 위해 숙소를 나섬.
- 오후 7시, 다렌역 출발

● 5월 5일(수)

- 오전 8시, 텐진(天津)도착
- 오전 8시~9시, 시 외곽의 빈하이신구(濱海新區)를 시찰
- 오전 11시-오후 2시, 주요 수행원들과 함께 시내로 돌아와 수정궁 호텔 인근의 영빈관에서 텐진시 주요 인사들이 베푼 환영 오찬에 참석
- 오후 3시 40분, 베이징 도착
- 오후 4시 50분, 베이징 дя오위타이(釣漁臺) 도착
- 오후 5시 10분, 인민대회당으로 향함.
- 오후 5시 30분~오후 7시, 북·중 정상회담
- 오후 7시~오후 10시, 환영만찬
- 오후 10시 25분, дя오위타이(釣漁臺) 도착

● 5월 6일(목)

- 베이징 외곽의 창핑(昌平)구 소재 중관촌(中關村) 생명과학원을 다녀온 뒤 원자바오(溫家寶) 총리와 오찬
- 오후 4시30분, 베이징역 출발

● 5월 7일(금)

- 오전 9시, 선양에 도착, 영빈관에 머물다 부근에 있는 항미원조열사릉(抗美援朝烈士陵)을 찾아 6.25에 참전한 중국 군인들의 넋을 기림.
- 오후 1시, 랴오닝(遼寧)성 성도인 선양(瀋陽)에서 승용차 편으로 국경도시인 단둥(丹東)으로 출발
- 오후 3시55분, 단둥(丹東)의 북중 우의교를 넘어 귀국길에 오름.

2) 김정일 국방위원장 訪中 관련 기사보도

● 北, 김정일 방중보도…정상회담 언급 안 해(5/7, 조선중앙통신; 연합뉴스)

- 조선중앙통신, 조선중앙방송 등 북한의 언론매체들이 김정일 국방위



원장의 중국 방문 나흘 만인 7일 오전 방중 사실을 처음으로 확인 보도

- 이들 매체는 그러나 김 위원장이 랴오닝성 다롄(大連)시와 텐진(天津)시를 방문해 현지 산업시설을 둘러본 소식만 전하고, 베이징(北京) 방문 및 후진타오(胡錦濤) 국가주석과의 정상회담에 대해서는 일절 언급하지 않음.
- 중앙통신은 오전 9시2분 “김정일 동지께서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 총서기이고 중화인민공화국 주석이신 호금도(후진타오) 동지의 초청에 의해 5월 3일부터 7일까지 중화인민공화국을 비공식 방문해 동북 지역에 대한 방문을 진행하셨다.”고 밝힘.
- 중앙통신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리커창(李克強) 부총리의 영접을 받으면서 다롄시를 방문해 대련빙산그룹, 대련기관차생산공사, 요령어업그룹, 대련설봉산업그룹 등을 참관하고 왕민(王珉) 랴오닝 당서기, 천정가오(陳政高) 랴오닝성장, 왕자루이(王家瑞) 공산당 대외연락부장, 류즈쥘(劉志軍) 철도부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리 부총리가 마련한 연회에 참석
- 텐진에서도 장가오리(張高麗) 텐진 당서기, 황싱궈(黃興國) 시장 등의 안내를 받으면서 텐진항을 시찰하고 연회에 참석했다고 통신은 전함.
- 또한 “김정일 동지께서는 8천리에 달하는 중국 동북 지역을 오가시며 중국 인민의 사상감정과 경제, 문화 등 모든 부분을 깊이 있게 요해하셨다.”면서 “이번에 진행하신 중화인민공화국 비공식 방문은 호금도 동지와 중국의 당과 정부의 특별한 관심과 뜨거운 환대 속에 성과적으로 진행됐다.”고 말함.
- 김 위원장의 중국 방문에는 김영춘 인민무력부장, 최태복·김기남 당 중앙위 비서, 강석주 외무성 제1부상, 노동당의 장성택(행정)·김영일(국제)·김양건(통일전선) 부장, 주규창 당 군수공업부 제1부부장, 현철해·리명수 국방위원회 국장, 김평해 평안북도 당 책임비서, 태중수 함경남도 당 책임비서 등이 수행

● 수행자 면면 보니…당·군 실세 총출동(5/7, 연합뉴스)

-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이번 중국 방문은 외자유치와 북중경협을 위해 국방위원회와 노동당, 지방의 당 책임자들까지 총출동한 듯한 모양새였음.
- 군부에서는 김영춘 국방위원회 부위원장 겸 인민무력부장과 현철해·리명수 국방위 국장이, 노동당에서는 최태복·김기남 비서, 장성택 당 행정부장, 주규창 당 군수공업부 제1부부장에다, 대중 외교 전담인 김영일 당 국제부장, 중국통이자 대남사업 책임자인 김양건 당 통일전선부장이 수행
- 또한 또 북한의 ‘대미 외교 총수’라고 할 수 있는 강석주 외무성 제1부상과 지방에서 김평해 평안북도 당 책임비서와 태중수 함경남



- 도 당 책임비서도 동행
- 북한 군부의 2인자라고 할 수 있는 김영춘 부장은 2000년 군 총참모장 시절부터 이번까지 김 위원장의 5차례 방중 가운데 앞선 4차례를 모두 수행한, 군부 내에서 유일한 인물
 - 같은 군부 인물인 현철해 국장은 2001년에 이어 두 번째, 리명수 국장은 처음 김 위원장의 방중을 수행, 현 국장은 2004년 군 총정치국 상무부국장 직책을 갖고 김 위원장의 군부대 시찰에 앞서 김정은·정철 형제와 사전 답사를 하는 등 ‘왕자 군교육’을 맡기도 함.
 - 장성택 부장은 김 위원장의 국정운영을 곁에서 보좌하고 있는 북한 권부 실세이며, 2008년 김 위원장의 와병 이후 지근거리에서 국정 운영을 보좌하면서 김정은 후계체제 구축도 총괄하는 것으로 알려짐.
 - 국방위 외교 참사를 겸임하는 것으로 알려진 김양건 부장은 올해 외자유치를 목적으로 설립된 조선대풍국제투자그룹의 초대 이사장으로 임명돼 중국의 대북 투자유치를 이끌고 있었으며 2000년과 2001년에 이번까지 세 번째 김 위원장의 방중을 수행
 - 6자회담과 대미 외교를 이끌고 있는 강석주 외무성 제1부상이 수행한 것은 이번 방중을 통해 양국 간에 6자회담에 관한 논의가 심도 있게 이뤄졌음을 시사
 - 김영일 당 국제부장은 북중 외교, 특히 북중 간 정상외교를 전담하고 있는 인물로 지난 2월 김 위원장의 방중에 앞서 사전 답사했음.
 - 김 위원장을 처음 수행한 최태복 비서는 현재 노동당 내에서 국제 및 과학 분야를 전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북한이 최근 ‘최첨단’을 외치며 과학기술 발전에 안간힘을 쓰고 있는 분위기와 연관이 있을 것으로 분석
 - 역시 처음 김 위원장을 수행한 김기남 비서는 김정은 후계체제 구축의 선전선동을 총괄하는 인물이어서 눈길을 끄.
 - 북·중 접경지역을 책임지고 있는 김평해(평안북도)·태중수(함경남도) 두 당 책임비서가 수행한 것은 방중의 초점이 어디에 맞춰져 있는지를 짐작하게 함.

● 김정일 ‘6자회담 유리한 조건 조성희망’(5/7, 신화통신)

- 관영 신화통신은 7일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베이징 방문기간 후진타오 주석과 북·중 정상회담을 가졌으며, 김 위원장은 북·중 정상회담에서 “북한은 유관 당사국과 함께 6자회담 재개를 위한 유리한 조건을 조성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고 전함.
- 정상회담에서 김 위원장은 “한반도의 비핵화에 대한 북한의 입장은 변함이 없다”고 밝혔으며 북·중 양국은 6자회담 당사국이 성의를 보이고 6자회담 프로세스를 추진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 함.
- 통신은 “북·중 양국은 9.19 공동성명의 합의에 근거해 한반도의 비핵화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고 전함.



- 후 주석은 북·중 간 우호협력 관계를 높이 평가하면서 동북아시아 지역의 평화와 안정, 번영을 위해 ▲고위층 교류 지속 ▲내정 및 외교문제, 국제정세 등의 문제에 대한 전략적 소통 강화 ▲경제무역협력 심화 ▲문화, 교육, 스포츠 등 인문 교류 확대 ▲ 동북아 평화와 안정을 포함해 국제와 지역 문제에서의 협력 강화 등 5가지를 제안
- 김 위원장은 후 주석의 5가지 제안에 대해 전적으로 동의한다고 말하고 “신 압록강대교의 건설은 양국 우호협력의 새로운 상징”이라면서 “호혜공영의 원칙에 따라 북한은 중국 기업이 북한에 투자하고 양국 간 실무협력의 수준을 제고하는 것을 환영한다”고 말함.
- 김 위원장은 “인민생활의 수준을 부단히 제고하는 것이 북한 노동당 업무의 중심적인 임무”라고 말하고 후 주석에게 편리한 시기에 북한을 방문해 달라고 초청하였으며 이에 대해 후 주석은 감사를 표시, 흔쾌히 방문초청을 수락
- 김 위원장은 이번 방문에서 원자바오(溫家寶) 중국 총리와 별도로 회동, 양국 간 경제협력 문제 등을 논의하였는데, 원 총리는 김 위원장에게 “중국은 북한의 경제발전과 민생 개선을 적극 지지하며 북한에 중국의 개혁개방과 경제건설의 경험을 소개해주고 싶다”고 말함.
- 원 총리는 이어 “북·중 경제협력은 매우 큰 잠재력이 있으며 양국은 함께 노력해 중점협력 프로젝트를 적극 추진하고 변경(국경지역)의 기초시설(인프라)건설과 새로운 영역과 방식을 통한 협업을 위해 종합적으로 협력하기를 희망한다”고 말함.
- 김 위원장은 권력 서열 2위인 우방궈(吳邦國)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장과도 별도 회동을 가졌고 자칭린(賈慶林) 정협주석, 리창춘(李長春) 정치국 상무위원, 시진핑(習近平) 부주석, 리커창(李克強) 부총리, 허궈창(賀國強)·저우용강(周永康) 위원 등 정치국 상무위원 9명과 각종 행사를 통해 모두 만남. 특히 후 주석은 6일 오전 김 위원장이 중관촌(中關村) 생명과학원을 방문할 때 직접 안내를 맡았다고 통신은 덧붙였다.

● 김정일 訪中 북·중 정상 대화내용 정리(5/7, 신화통신; 연합뉴스)

◇ 후진타오 주석

- 중국 공산당과 정부 인민을 대표해 김정일 위원장이 다시 중국을 방문해 주신 것을 열렬히 환영합니다. 북한이 칭하이(靑海)성 위수(玉樹)현 지진 발생 후 신속하게 조전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상하이(上海) 엑스포에 참가하고 지지를 보내준 데 대해서도 감사를 표합니다. 북·중 전통 우의는 양당과 양국 인민들의 고귀한 재산입니다. 양국 우호관계를 시대의 흐름과 함께 발전시키고 대대손손 계승하는 것은 양국이 가진 공통된 역사적 책임입니다.
- 최근 양국관계는 부단히 새로운 진전을 보고 있습니다. 특별히 작년에 수교 60주년 양국 우호의 해 행사를 성공적으로 마쳤습니다. 양



국 정치교류와 각 분야의 교류와 협력이 풍성한 성과를 이뤄냈습니다. 양국 우호협력 관계를 강화하고 발전시키는 것은 중국 당과 정부의 일관된 정책입니다. 우리는 전략적이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양국 관계를 유지하고 발전시켜 왔으며 북한과 함께 노력해 양국관계를 새로운 단계로 발전시키기를 희망합니다.

- 양국 인민에게 행복을 가져다주고 지역의 평화와 공동번영을 실현하기 위해 크게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 양국 협력을 강화하는 것은 양국의 사회주의 건설과 공통된 이익 수호, 지역의 평화와 안정, 번영 촉진에 모두 도움이 됩니다.
- 이를 위해 5가지 분야에서 협력할 것을 제안합니다.
- 첫째가 고위층 교류 지속입니다. 양국 지도자들이 상호방문과 특사 파견, 구두 친서 전달 등 유연하고 다양한 방식으로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 둘째로 전략적 소통의 강화입니다. 양국은 수시로 혹은 정기적으로 양국 내정 및 외교에서의 중대문제와 국제 및 지역정세, 국정 운영경험 등 공통관심사항에 대해 심도 있게 의사소통해 나가야 합니다.
- 셋째가 경제무역 협력 심화입니다. 양국 정부의 담당부처는 경험 심화를 위해 진지한 논의를 해야 합니다.
- 넷째가 인문교류 확대입니다, 문화, 교육, 스포츠 등 각 분야 특히 청소년 교류를 강화해 양국 전통적인 우의가 대대손손 이어지도록 해야 합니다.
- 다섯째는 국제 및 지역 문제에서의 협력을 강화하고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더욱 수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 북한이 안정 유지와 경제 발전, 민생 개선 등을 위해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는 데 대해 높이 평가합니다.
- 김정일 위원장이 이끄는 노동당의 지휘 아래 국가건설 사업에 더 큰 성과를 이뤄내기를 기원합니다.

◇ 김정일 국방위원장

- 초청해 주시고 열렬히 맞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제의하신 5가지 제안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 양국의 선대 지도자들이 손수 맺어 키워낸 전통적 우의 관계는 시대의 풍파와 시련을 겪었지만 시간의 흐름과 세대교체로 인해 앞으로 변화가 생겨서는 안 됩니다.
- 작년은 수교 60주년을 기념해 치른 양국 각계의 각종 경축 행사가 양국 우의를 새로운 역사적 단계로 끌어올렸습니다.
- 양국 간 각 분야에서의 우호 교류협력은 매우 양호한 발전 추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 최근에 합의한 신 압록강대교 건설은 양국 우호협력의 새로운 상징입니다. 호혜공영의 원칙 아래 북한은 중국 기업의 대북투자를 환영하고 양국 간 실무협력 수준을 제고하기를 희망합니다.



- 북한의 당과 정부는 전략적이고 장기적인 각도에서 양국 관계를 수호하고 양국관계를 계속 전승해 나갈 것입니다.
 - 상하이(上海) 엑스포가 성공적으로 개막하게 된 것을 축하합니다. 칭하이 위수 지진으로 많은 인명 및 재산피해가 난 데 대해 위로를 전합니다. 중국에 올 때마다 중국인들이 중국 특색사회주의의 위대한 사업에서 새로운 성과를 이룬 데 대해 깊은 인상을 받습니다.
 - 중국의 발전은 북한 인민들을 크게 고무시키고 격려가 됩니다.
 - 북한에서는 각 분야의 업무가 안정적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부단히 인민생활의 수준을 제고하는 것은 당 업무에서 중심적인 임무를 차지합니다.
 - 후 주석이 이끄는 중국 공산당의 지휘 아래 중국인들은 당의 집권능력 건설과 과학적 발전관 실천, 조화사회 건설 등에서 큰 성과가 있을 것으로 확신합니다.
 - 한반도의 비핵화를 견지하는 우리의 입장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우리는 유관 당사국과 함께 노력해 6자회담 재개를 위한 유리한 조건을 조성하기를 희망합니다.
 - 중국이 6자회담 진전을 위해 적극적인 노력과 공헌을 한 것을 높이 평가합니다. 편리한 시기에 북한을 다시 한 번 방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 **北매체, 북·중 정상회담 뒤늦게 보도(5/8, 조선중앙통신, 조선중앙방송)**
- 앞서 7일 북한 매체들은 김 위원장의 중국 방문 나흘 만에 방중 사실을 처음 보도했지만, 베이징 방문 및 후 주석과 정상회담에 대해서는 침묵한 채 랴오닝성 다롄(大連)시와 톈진(天津)시를 방문해 현지 산업시설을 둘러본 소식만 전했다.
 - 통신 등 북한 매체들은 김 위원장이 후 주석의 초청으로 지난 3일부터 7일까지 중국을 비공식 방문했고, 김 위원장과 후 주석 간 상봉 및 회담이 5일과 6일 이틀간에 걸쳐 베이징에서 진행됐다고 중국 언론에 보도된 양국 정상회담 내용과 두 정상의 발언을 거의 그대로 소개
 - 통신 등은 김 위원장이 회담에서 동북지방 방문에 대한 소감을 피력했고, “오랜 전통을 가지고 있는 조·중친선은 역사의 풍파와 시련을 이겨낸 친선으로서 세월이 흐르고 세대가 바뀌어도 달라질수 없다”며 양국관계를 더욱 강화발전시키려는 북한 지도부의 의지와 결심을 재천명했다고 밝힘.
 - 북한 매체에 따르면 우방귀(吳邦國)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임위원장은 지난 6일 김 위원장의 숙소를 찾아가 “양국관계를 새로운 높이에 오르도록 전면적으로 추동할 용의가 있다”고 말했고, 김 위원장은 “고위급 왕래와 협조를 부단히 심화시킬 용의가 있다”고 화답
 - 원자바오(溫家寶) 총리도 김 위원장을 만나 특별히 경제무역협조에



관해 의견을 교환했고, 김 위원장은 이에 “동북지역 방문에서 중국의 발전 모습을 목격하면서 커다란 감동을 받았고, 조·중쌍방이 많은 측면에서 서로 배우고 경험을 교류해야 한다”고 말함.

- 통신은 원 총리가 김 위원장을 환영해 연회를 마련했다며 연회에서 김 위원장과 후 주석의 연설 전문을 공개함. 이어 김 위원장이 귀국길에 선양(瀋陽)을 방문해 송풍기유한공사, 선양제1공작기계공장, 역사유적인 북릉공원을 참관하고 랴오닝(遼寧)성과 선양시당에서 마련한 연회에 참석했으며, 방중 전기간 통행하면서 성심성의를 안내해준 왕자루이 등 중국 지도부의 뜨거운 환송을 받으면서 단동을 통과했다고 전함.
- 통신은 “중국의 당 및 국가영도자들이 김 위원장을 최대의 성의를 다하여 극진히 환대했고, 김 위원장은 후 주석과 중국 당 및 정부의 특별한 관심과 뜨거운 환대에 충심으로 되는 사의를 표시했다”고 덧붙임.

● ‘김정일 변수’에 6자 행보 미묘한 차이(5/10, 연합뉴스)

- 중국은 ‘김정일 방중’으로 조성된 6자회담 재개 기류를 유지하는 외교에 적극적으로 나서려는 기색이지만 미국은 북한의 비핵화 의무 이행과 도발 중단을 촉구하면서 가급적 사태를 관망하며 신중한 모습
- 장위(姜瑜)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지난 7일 브리핑에서 김정일 위원장이 한반도 비핵화 의지에 변함이 없고 6자회담 재개를 위한 유리한 조건 조성을 희망했다는 사실을 언급하며 참가국들에 6자회담 진전을 위한 유연성과 성실성을 보여줄 것을 주문, 또 천안함 사건을 ‘불행한 비상사태’라면서도 “완전히 입증할 수 있는 사실이 발견되기 전까지 (남북) 양측은 차분히 자제하면서 말과 행동에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말함.
- 그러나 필립 크롤리 미국 국무부 공보담당 차관보는 같은 날 브리핑에서 “북한은 국제사회의 의무를 준수하고 도발 행위를 중단해야 한다.”라고 강조, 또 ‘김 위원장이 6자회담 재개를 위한 진전에 협력하고 싶다는 뜻을 밝혔다.’라는 지적에 “정확히 어떤 협력을 의미하는 것인지 모르겠다.”라고 모호성을 가미

3) 김정일 국방위원장 訪中 관련 남한 전문가 의견

- - 김 위원장의 이번 방중은 양국 간 정치적 유대를 강화하고 실질적 경제협력을 논의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 같음. 후진타오 주석이 고위층 교류 지속, 전략적 소통강화 등 5개항을 제안한 것은 김 위원장의 후계구축 과정을 포함해 북한에 대한 정치적 지지를 보여준 것
- 특히 ‘전략적 소통 강화’ 대상에 ‘내정’ 부분까지 포함시킨 것은 ‘내정



불간섭'을 외교의 대원칙으로 중시하는 중국 입장에서 상당한 신뢰와 지원을 암시한 것으로 풀이됨.

- 북한 측 수행단이 경협 문제를 실질적으로 다루는 당과 국방위원회 중심으로 짜여진 것도 주목할 필요가 있음. 또 김평해 평안북도 당 책임비서와 태중수 함경남도 당 책임비서가 처음 수행한 것은 신의주 특구와 함경남도 자원 개발과 연관됐을 수 있음. 김 위원장이 중국의 경제특구인 다롄과 톈진을 방문한 것도 비슷한 맥락이나, 비교적 움직임의 폭이 넓었다는 점에서 자신의 건재함을 과시하는 효과도 봤을 것 같음.
 - 6자회담 재개와 관련해서는 기존 논의선상에서 실질적 진전이 없었다고 봄. 북한은 작년 하반기 이후 보여줬던 수준의 대화의지를 재확인하면서 6자회담 의장국인 중국의 체면을 세워줬지만, 미국에 대해서는 '천안함 사건을 문제 삼지 말고 기존 트랙으로 돌아가자'는 메시지를 던진 것 같음.
- 김 위원장이 중국의 경제특구 2곳을 방문한 것은 이번 방중의 초점이 경협과 해외투자 유치에 맞춰져 있다는 점을 시사함. 김영춘(국방위 부위원장 겸 인민무력부장)과 주규창(당 군수공업부 제1부부장 겸 국방위원)이 동행한 것은 군사·안보 분야의 협력과 경제협력 문제를 북한의 최고권력기관인 국방위가 보장하겠다는 의미
 - 비핵화와 6자회담 재개에 대해서는 김 위원장이 전향적 입장을 밝혔다고 봄. 북한이 6자회담 전제 조건으로 주장해온 '대북제재 해제'와 '평화협정 논의'를 거론하지 않고, '6자회담 재개에 양측이 노력과 성의를 다 하기로 했다'고 발표한 것이 그렇다. 김 위원장이 그동안 언급을 피해온 '6자회담'과 '9.19 공동성명 합의'란 표현을 쓴 부분도 주목해야 함.
 - 후계 문제는 이번 방중의 주요 의제가 아니고 양 정상은 직접 논의하지도 않은 것 같음. 다만 김 위원장의 최측근이자 후계자 김정은의 '후견인'으로 알려진 장성택 당 행정부장이 처음 수행한 부분은 의미가 있다. 앞으로 권력승계가 이뤄진 후에도 양국 간 친선관계가 지속될 것이라는 시그널이 될 수 있기 때문
 - 천안함 사건이 거론됐다면 북한은 '무관하다'는 입장을 밝혔을 것이고 중국은 '두고 보자'는 정도로 답했을 것
- 전체적으로 예상보다 새로운 게 없음. 방중의 의미를 한마디로 정리하면 북·중 관계를 돈독히 했다는 것이나 정상들이 만나면 항상 나올 수 있는 수준
 - 북한 매체가 정상회담 부분을 보도하지 않은 것은 이상함. 정상회담 결과가 실망스러웠을 수도 있음. 천안함 사건 이후 남북 정상이 후주석을 잇따라 만나면서 중국이 뜻대로 안 된다는 점을 북한이 느꼈을 수 있음. 중국이야말로 남북 사이에서 등거리 외교를 한 것 같음.



- 북중 경협에서도 크게 새로운 내용은 없음. 기존 수준 정도로 가지는 것이어서 김정일이 서운했을 수 있음. 이런 결과를 공식화하기 부담스러우니까 북한 매체가 방중 자체를 '동북 지역' 방문으로 톤다운한 것
- - 북한과 중국 매체의 방중 보도가 서로 다른 것을 이상하게 보지는 않음. 북한 매체는 방중의 전반부만 전하고 중국 쪽은 전체적인 틀을 보도하는 것으로 분담한 것 같음.
 - 가장 큰 부분은 6자회담임. 특히 김 위원장이 '유관 당사국과 6자회담 재개를 위해 유리한 조건을 조성하길 희망한다'고 말한 것은, '우리는 6자회담 재개 준비가 다 됐다'는 얘기나 마찬가지임. 천안함 사건으로 코너에 몰리는 상황에서 6자회담 재개 의지를 표명한 셈. 후 주석이 전략적 소통과 국제·지역적 협력 강화를 제안한 것도 이에 대한 화답으로 이해됨.
 - 경협 부분에서 중국은 일방적 퍼주기보다, 소통과 정보 공유를 전제로 하는 형태를 요구했을 것이고, 북한은 경협의 수준을 최대한 높이자고 요청했을 것임. 중국의 식량지원이 보도문에 명시되지는 않았지만 분명히 식량 지원도 얘기가 됐을 것
 - 천안함 사건과 관련해 중국은 중립적 스탠스를 취하면서 정보 공유(사전 통보)를 강조했다 수 있음. 후 주석이 '양국 간 우호 관계를 대대손손 계승하자'고 말한 대목은 북한 후계구도에 대한 최종적 입장이라기보다 '이해한다' 정도의 언급으로 보임.
- - 북한과 중국의 보도가 다른 점이 눈에 띈. 양측이 모든 부분에 합의한 것 같지는 않음. 양쪽 모두 톤다운 하는 듯한 느낌도 주는데 북한쪽 기대가 잘 먹혀들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음.
 - 6자회담과 관련해 중국 매체가 보도한 내용은, 중국 입장을 의식해야 할 김 위원장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얘기임. 경협도 북한이 원하는 만큼 지원하기로 정부 차원의 약속이 이뤄진 것 같지는 않음. 아직 유엔의 대북 제재가 해제되지 않아 중국은 미국 등 국제사회의 시선을 무시할 수 없음. 이런 점들이 북한에게 불만일 수 있음. 가극 '홍루몽' 관람이 무산된 것도 비슷한 맥락

■ 김정일 동향

- 5/ 7 김정일 국방위원장, 5/3~5/7 정상회담차 중국방문(5/7, 중통)
- 5/ 9 김정일 국방위원장, 국립연극단의 경희극(輕喜劇) '산올림' 재관람(5/9, 중통)
 - 김영춘 인민무력부장, 김정각 군 총정치국 제1부국장, 리영호 군 총참모장, 노동당의 최태복·김기남 비서와 김경희(경공업)·장성택(행정)·김영일(국제)·김양건(통일전선) 부장, 강석주 외무성 제1부상이 수행



■ 기타 (대내 정치)

- 北 기자동맹대표단(단장: 이혁성 부위원장), 5.5 中國 방문차 기자편으로 평양 출발(5/5, 중방)

나. 경제

● 北무역은행 채무 변제 못해 美법원에 피소(5/5, 연합뉴스)

- 북한의 대표적인 대외거래 결제 은행인 조선무역은행이 대만의 한 은행으로부터 빌린 돈을 갚지 못해 뉴욕 법원에 피소된 것으로 확인
- 대만의 메가인터네셔널커머셜뱅크(MICB)는 지난 2001년 8월 25일 조선무역은행이 차용한 500만 달러 상당의 원금과 이자 등에 대한 상환 청구 소송을 지난 1월 14일 미 연방 뉴욕남부지방법원에 제기
- 이에 따라 법원은 지난달 15일 원고인 MICB와 피고 조선무역은행 측에 7일까지 소송상황 요약서(status letter) 및 소송진행 계획서를 제출할 것과 오는 17일 법정에 출두할 것을 명령하는 요구서를 발송
- 4일(현지시간) 연합뉴스가 입수한 MICB의 소장에 따르면 북한 조선무역은행은 당시 총 500만 달러를 MICB로부터 빌리면서 3년 후인 2004년 9월 15일까지 뉴욕 소재 조선무역은행 계좌를 통해 뉴욕 소재 MICB 계좌에 원금과 이자를 3회에 걸쳐 균등 상환기로 약정했음.
- 그러나 조선무역은행 측은 이를 전혀 상환하지 않고 있다가 MICB의 독촉이 잇따르자 2008년 12월 이자 10만 달러, 이듬해 1월 이자 6만2천 달러, 2월에 원금 10만 달러, 4,5월에도 각각 원금 10만 달러 등 모두 46만2천 달러 가량을 나눠 갚은 뒤 이후 추가 상환을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 中 지린성 창바이, 北 변경관광 개통(5/9, 길림신문; 연합뉴스)

- 중국 지린(吉林)성 바이산(백산)시 창바이(長白)조선족자치현이 지난 1일부터 북한 변경관광을 위한 통행증 발급을 시작했다고 보도
- 외국인들도 바이산시나 창바이현에서 통행증을 발급받아 창바이 통상구를 통해 북한 변경관광 가능, 서류 접수 후 5일이면 통행증이 발급
- 백두산과 인접해 있고 북한 혜산과 마주한 창바이현은 2007년 통상구를 건설, 대북 교역을 시작했으나 북한 변경관광은 이뤄지지 않았음.
- 중국은 북한을 관광하는 자국민들 사이에 도박이 성행하자 2005년 북한 변경관광을 전면 중단시켰다가 지난해 4월 단둥(丹東)과 투먼(圖們), 안투(安圖) 등 일부 지역에 한해 재허용했으며 지난달에는 연변 지역 변경관광과 북한 내륙 단체관광을 전면 재개



■ 기타 (대내 경제)

- 조선기록과학촬영소, 《락화생》·《키낮은 과일나무들》 등 과학 영화 완성(5/3,중통)
- 北, 중국 ‘2010년 상해세계박람회’ 기념우표(묶음전지 1종) 발행(5/4, 중통)
- 사회과학원, 사회과학성을 집대성한 ‘조선사회과학학술집’ 발행사업 진행(5/6,중통)

다. 사회·문화

● 월드컵 D-30, 44년 만에 출전…북한도 뜨겁다(5/5, 조선중앙TV; 조선신보)

- 북한은 아시아 국가 가운데 최초로 8강에 오른 잉글랜드 월드컵에 이어 이번이 사상 두 번째 본선 진출이어서 예상 밖으로 분위기가 고조
- 북한은 작년 6월 월드컵 본선 진출을 확정짓고 귀환한 축구대표팀을 위해 당·군·정 고위간부들이 총출동해, 평양 순안공항에서 대대적인 환영식을 열었고 시내까지 카퍼레이드를 벌인 뒤 평양의 유명 음식점인 옥류관에서 내각 주최 연회를 베풀었음.
- 북한 당국은 작년 말 화폐개혁 이후 심각한 경제난에도 불구하고 축구대표팀에 파격적 지원을 아끼지 않음. 북한 대표팀은 작년 10월 프랑스 낭트에서 11일간 전지훈련을 했고, 1월초부터는 터키 안탈리아에서 35일간 전지훈련을 했음.

● 북한서 신석기 질그릇 가마터 발굴(5/5, 조선중앙통신)

- 통신은 북한 고고학자들이 황해북도 승호군 리천리 일대에서 신석기 시대 질그릇 가마터를 발굴했다고 보도
- 통신은 타원형으로 생긴 가마터의 중심에는 직경 125~145cm 가량의 화덕 자리가 발견됐으며 주변에서 당시 만들어진 질그릇 10개가 그대로 보존돼 있었다고 전함.
- 이어 형태와 크기, 연대 측정 결과에 따르면 이 가마터는 신석기 시대 중기인 약 6천500년 전의 것으로 추산돼 북한에서 발굴된 가마터 가운데 가장 오래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덧붙였다.
- 또한 통신은 “세계적으로 드문 신석기 시대 질그릇 가마터가 대동강 유역에서 발굴된 것은 인류 문화의 발원지, 문화 발전의 중심지였던 평양의 역사적 지위를 학술적으로 보다 공고히 한 것”이라고 자평

● 北축구대표팀, 10일부터 스위스서 전지훈련(5/7, 조선신보)

- 북한 축구대표팀이 월드컵 본선에 진출한 후 여러 차례 해외 전지훈련에 나서 전력 강화에 주력해 왔으며 “5월10일부터 스위스를 거점



으로 강화합숙(전지훈련)을 진행한다.”라며 6월 초 ‘결전의 땅’ 남아공으로 들어갈 예정이라고 밝힘.

- 이어 스위스 전지훈련 기간 북한 대표팀이 월드컵 진출팀인 그리스, 파라과이 대표팀과 평가경기를 치른다면서 북한대표팀 주축인 정대세(가와사키)와 안영학(오미야) 선수도 합류할 예정, 또 북한 축구대표팀 관계자의 말을 인용, 현재 문인국과 박남철 선수의 상태가 가장 좋다고 덧붙임.

■ 기타 (대내 사회·문화)

- 조선중앙역사박물관, 최근 발굴된 70여점의 유물들과 250여건의 사진들을 시기별로 나누어 역사유적유물전시회 진행(5/3, 중통)
- 제12차 국내외 동포들의 평양의학과학토론회 참가자들, 5/3 만수대 김일성동상 참배(5/3, 중통)
- 북한 축구대표팀 2010년 남아프리카공화국 월드컵 대회 참가 위해 8일 평양 출발(5/8, 중통)

2. 대외정세

■ 기타 (대외 일반)

- 김정일과 김영남, 이집트 대통령 ‘무함마드 후쓰니 무바라크’ 생일 82돌 관련 5/3 각각 축전발송(5/3, 중통)
- 中 인민지원군열사가족 대표단(국방부 외사관공실‘관우비’소장), 5/3 평양 도착(5/3, 중통)
- 김영남, 5/4 駐튀르키예대사(에르도간 세리프 이스칸)에게서 신임장 접수 및 담화(5/4, 중통)
- 러시아 정부, 5/4 김정일에게 ‘조국전쟁승리(8.15광복) 65돌’ 기념메달 수여식 駐北 러 대사관에서 진행(5/4, 중통)
 - 리을설, 김철만, 리종산, 황순희, 김옥순, 박경숙, 리영숙, 전순희, 리정인(항일혁명투사)에게도 5/4 기념메달 수여 및 이와 관련한 연회도 개최
- 러시아 21세기관현악단, 5/4 귀국(5/4, 중방)
- 北-쿠바 외교관계 설정 50돌 즈음 미술작품전시회 및 영화감상회, 5/6 駐北 쿠바대사관에서 진행(5/6, 중통)

3. 대남정세

● 평화의 절박성 부각시킨 보복론(5/3, 조선신보)

- 신문은 南 정부와 여당이 ‘천안함 침몰’ 관련 “北관련설 여론몰이 등 대결정서를 선동하고 있다”며 이는 “평화협정 회담을 제의한 수뇌부



의 의향과 전적으로 배치되는 발상“이라고 전함

- ‘北관련설’에 매달리는 南보수세력은 합선 공격의 동기를 제멋대로 꾸미고 있으나 그러한 발상은 모두 평화협정회담을 제의한 수뇌부의 의향과는 전적으로 배치되는 것들이라고 보도

● 징벌조치들은 연속 취해질 것이다(5/4, 민주조선)

- 北의 금강산 부동산 동결 관련 南통일부장관의 ‘강력히 대처’발언, 남측의 ‘전쟁불사’론, 미군과의 ‘연합실 자격훈련’ 등에 대해 “보수패당이 지금처럼 반공화국대결책동에 미쳐 날뛰며 사태를 악화시킨다면 단호한 징벌조치들을 연속 취해나갈 것”이라고 주장

● 北매체, ‘황장엽 암살사건은 南자작극’(5/5, 우리민족끼리)

- 우리민족끼리는 5일 황장엽 전 노동당 비서를 암살할 목적으로 북한 인민무력부 산하 경찰총국이 밀파한 탈북자 위장간첩 사건에 대해 “터무니없는 자작극”이라고 비난
- 우리민족끼리는 이날 ‘대결에 미친자들의 단말마적 발악’ 제목의 논평에서 남한 당국이 최근 ‘북한은 주적(主敵)’이란 개념을 부활시키려 하는 등 “남북관계를 대결과 전쟁의 극한점으로 몰아가고 있다”며 황 전 비서에 대한 암살 사건을 사례로 꼽음.
- 매체는 “(남한)공안당국은 ‘황가 암살조 체포사건’이라는 터무니없는 자작극을 연출하고 대대적인 반공화국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며 “역대 친미정권이 안팎으로 궁지에 몰릴 때마다 있지도 않은 모략극을 조작해 위기를 수습하려고 책동했다는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라고 주장
- 이어 “우리는 날로 엄중해지는 (남한당국의) 대결소동을 예리하게 주시하고 있다”며 “대세에 도전하는 자들에게 어떤 단호한 징벌이 내려질 것인지는 시간만이 증명해 줄 것”이라고 남측을 위협



II. 동북아정세

1. 대북한 관련

가. 북핵 문제 및 6자회담

● <‘김정일 변수’에 6자 행보 미묘한 차이>(5/9)

-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방중 이후 6자회담 재개와 천안함 문제를 둘러싸고 관련국의 행보가 미묘한 차이를 느끼게 하고 있음. 방중 이벤트를 통해 존재감을 과시하려는 북한은 천안함 문제로 자신들로 향하는 국제사회의 눈초리를 분산시키려 하고 있고, 그 반대편에서 있는 한국은 ‘천안함 그물’을 가급적 넓히려는 행보에 주력하고 있음.
- 오는 20일로 예정된 정부의 천안함 침몰 원인 조사결과에 따라 양측의 수 싸움의 양상도 달라질 것으로 예상됨. 이런 가운데 국제사회의 이슈를 주도하는 G2(주요 2개국)인 미국과 중국의 움직임도 빨라지고 있음. 중국은 ‘김정일 방중’으로 조성된 6자회담 재개 기류를 유지하는 외교에 적극적으로 나서려는 기색이지만 미국은 북한의 비핵화 의무 이행과 도발 중단을 촉구하면서 가급적 사태를 관망하며 신중한 모습임.
- 장위(姜瑜)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지난 7일 브리핑에서 김정일 위원장이 한반도 비핵화 의지에 변함이 없고 6자회담 재개를 위한 유리한 조건 조성을 희망했다는 사실을 언급하며 참가국들에 6자회담 진전을 위한 유연성과 성실성을 보여줄 것을 주문했음.
- 장 대변인은 또 천안함 사건을 ‘불행한 비상사태’라면서도 “완전히 입증할 수 있는 사실이 발견되기 전까지 (남북) 양측은 차분히 자제하면서 말과 행동에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말했음. 천안함 사건과 관련해 중립적인 태도를 유지하면서 6자회담 진전에 대한 의장국으로서의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풀이되는 대목임.
- 그러나 필립 크롤리 미국 국무부 공보담당 차관보는 같은 날 브리핑에서 “북한은 국제사회의 의무를 준수하고 도발 행위를 중단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크롤리 차관보는 또 ‘김 위원장이 6자회담 재개를 위한 진전에 협력하고 싶다는 뜻을 밝혔다’라는 지적에 “정확히 어떤 협력을 의미하는 것인지 모르겠다”라고 모호성을 가미했음.
- 이는 현 시점에서 중국과 북한이 주도하는 6자회담 재개 움직임에 휩쓸리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상황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음. 북·중 정상회담의 내용과 북한의 진정한 의도를 정확하게 파악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에서임.
- 실제 한·미 양국은 이런 차원에서 이미 중국 정부로 받은 ‘디브리핑’



내용을 서로 교차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천안함 사건 조사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 지켜보기 위해서라도 미국으로서는 굳이 서두를 필요가 없다는 지적임. 따라서 6자회담과 천안함 사건을 둘러싼 관련국들의 외교전은 이제부터라는 게 전문가들의 시각임.

- 한국 정부의 조사 결과 발표 뒤 중국을 중심으로 본격적인 6자회담 재개의 '수순 밟기'에 돌입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음. 정부의 천안함 사건 조사 결과가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느냐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함. 천안함 침몰이 북한 소행임을 입증할 '확실한 증거'를 제시할 경우 6자회담 문제보다는 북한에 대한 국제사회의 압박이 고조될 것임.
- 이 경우 한때 추진되다 최근 주춤해진 것으로 알려진 북미 양자대화 움직임이 가시화하고, 이어 6자 예비회담 개최로 이어지는 등 한반도 정세가 급변할 수도 있다고 일부 외교소식통은 전하고 있음. 한 소식통은 9일 "6자회담 재개와 관련해 미·중 양국의 전략적 판단이 가장 큰 변수가 될 것"이라며 "한국으로서는 '천안함 외교'를 펼치면서도 한반도를 둘러싼 각국 입장에 대해 냉철하고 정확한 판단이 요구되는 시점"이라고 말했다.

● 美전문가들 "6자회담 새돌파구 마련 안 돼"(5/8)

-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중국 방문 결과에 대해 미국 전문가들은 주목돼 왔던 6자회담 재개를 위한 큰 돌파구가 마련되지 않는다는 평가를 내놓았음. 브루스 클링너 미 헤리티지재단 선임연구원은 8일 연합뉴스에 "김 위원장의 방중 결과와 관련한 초기 보도들은 북한이 6자회담에 복귀하는 것에 대한 돌파구가 없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밝혔다.
- 그는 "핵협상으로 결국 돌아오기 위해 긍정적인 여건을 조성하는데 중국과 협력할 것이라는 김 위원장의 언급이 6자회담의 좋은 징조는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북한은 핵 의제를 계속 가져가려고 하는 것으로 보인다"라면서 "한국과 미국, 일본은 천안함 조사가 완료될 때까지 협상으로 복귀하지 않을 뜻을 나타내고 있다"라고 말했다.
- 그는 이어 "과거 북·중 정상회담의 일반적인 결과였던 경제적 지원 발표가 없는 것이 북한의 요청을 중국이 거절한 것인지, 아니면 천안함 침몰과 관련해 북한이 의심을 받는 상태에서 지원 사실을 공개하는 것이 단순히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한 것인지는 불명확하다"라고 말했다. 데이비드 스트로브 전 미 국무부 한국과장도 "김 위원장이 6자회담에 대해 새로운 것은 거의 말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라고 평가했다.
- 미 스탠퍼드대 아태연구소 부소장인 그는 "북한이 지금 6자회담 복귀 조건들을 포기할 준비가 돼 있더라도, 미국은 6자회담 재개를 고려하기 이전에 한국의 천안함 조사 결과 발표를 기다리고 한국의 대



응에 협력할 것”이라고 전망했음.

- 그는 “이번의 김 위원장 중국 방문은 중국의 전략적이고 장기적인 대북 접근을 강조해 준다”라면서 “중국의 우선순위는 신화통신이 보도했듯이 역내 평화와 안정 및 번영에 있지 북한의 핵무기 개발이나 북한 인권상황에 있지 않다”라고 지적했음. 그는 “한국과 미국은 이런 점들을 좀 더 깊이 고려해야 한다”라면서 “특히 천안함 침몰 사태에서는 그렇다”라고 말했음.

● <김정일訪中> “6者재개 가능성 높여”(5/8)

- 중국의 한반도 전문가들은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방중이 북핵 6자회담의 재개 가능성을 높였다”며 일단 긍정적으로 평가했음. 반 관영 통신사인 중국신문사의 8일 보도에 따르면 류장용(劉江永) 칭화(淸華)대 국제문제연구소 교수는 북·중 정상회담에서 북한은 한반도의 비핵화를 실현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면서 6자회담 문제에서 중요한 진전이 있었고 회담의 재개 가능성을 높였다고 평가했음.
- 류 교수는 그러나 6자회담이 조속히 재개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복잡한 변수가 많다”며 신중한 입장을 취했음. 그는 “회담 재개는 시기가 얼마나 이른지 늦은지의 문제가 아니라 실질적인 내용의 진전이 있는지에 달려 있다”면서 “문제의 복잡성과 불확실성, 다른 유관 당사국들의 반응을 예의주시해야 한다”고 말했음.
- 왕이저우(王逸舟) 베이징대 국제관계학원 부원장은 “정상회담에서 중국 지도부가 한반도의 비핵화란 대명제에 대해 아무런 변화가 없다는 사실을 매우 공식적인 방법으로 국제 사회에 약속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고 말했음.
- 김 위원장은 5일 열린 후진타오(胡錦濤) 중국 국가주석과의 정상회담에서 “북한은 유관 당사국과 함께 6자회담 재개를 위한 유리한 조건을 조성하기를 희망한다”면서 “한반도의 비핵화에 대한 북한의 입장은 변함이 없다”고 말했음.
- 중국 전문가들은 양국 정상이 합의한 5개항의 협력 방안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평가했음. 류 교수와 왕 부원장은 “5개항의 협력방안은 향후 북·중 관계 발전의 기초가 될 것”이라면서 “양국 청소년의 교류 확대는 현실적이고 역사적인 의미를 지닌다”고 평가했음.
- 후 주석은 5일 열린 정상회담에서 김 위원장에게 ▲ 고위층 교류 지속 ▲ 내정 및 외교문제, 국제 및 지역정세, 국정 운영 등 중요 공통 관심사에 대한 전략적 소통 강화 ▲ 경제무역협력 심화 ▲ 문화, 교육, 스포츠, 청소년 등 인문 교류 확대 ▲ 동북아 평화와 안정을 포함해 국제와 지역 문제에서의 협력 강화 등 5가지를 제안했고 김 위원장은 이에 전적으로 동의했음.



● 北 “6자회담 유리한 조건조성 희망”(5/7)

-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은 후진타오(胡錦濤) 중국 국가주석과의 북·중 정상회담에서 “한반도의 비핵화에 대한 북한의 입장은 변함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관영 신화통신이 7일 보도했음. 통신은 북·중 정상회담에서 북한 측이 “유관 당사국과 함께 6자회담 재개를 위한 유리한 조건을 조성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고 덧붙였다.
- 그러면서 북·중 양국은 6자회담 당사국이 성의를 보이고 6자회담 프로세스를 추진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음. 북·중 양국은 9.19 공동성명의 합의에 근거해 한반도의 비핵화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했음.

● 中 “6자회담 조속 재개 주력”(5/6)

- 중국 외교부는 6일 북핵 6자회담의 조속한 재개를 위해 주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음. 장위(姜瑜)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방중 나흘째이자 북·중 정상회담 다음날인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이 6자회담에 복귀할 준비가 돼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는 연합뉴스 보도를 부인하지 않은 채 이같이 말했음.
- 장 대변인은 “6자회담은 한반도 비핵화와 동북아시아의 장기적인 안정을 도모하는 가장 바람직한 채널”이라면서 “우리는 유관 당사국들과 대화와 소통을 유지하면서 조속히 6자회담을 재개하기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음. 장 대변인의 이 같은 발언은 김 위원장이 전날 열린 후 주석과의 정상회담에서 6자회담에 대한 긍정적인 입장을 전달했다는 관측에 무게를 실어주고 있음. 연합뉴스는 5일 김 위원장이 비핵화 의지를 밝히면서 6자회담에 나갈 준비가 돼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며 보도한 바 있음.
- 한편 장 대변인은 이날 김 위원장의 방중 사실을 확인해 달라는 요구에 “현재까지 여러분에게 제공할 정보가 없다”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하면서도 “북한 최고지도자의 방중이 있다면 관련 소식은 적당한 시기에 발표할 것”이라고 말해 김 위원장이 귀국길에 오른 뒤 발표가 이뤄질 것임을 시사했음.

● 안보리 상임이사국 “北, 6자 합의이행” 촉구(5/6)

-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상임이사국(P5:미·중·러·영·프)들은 5일 “북한이 6자회담 합의를 이행할 것을 강력 촉구한다”고 밝혔음. 상임이사국들은 이날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핵무기비확산조약(NPT) 평가회의에서 성명을 내고 “우리는 6자회담을 확고히 지지한다”면서 이같이 강조했다. 5개국은 6자회담 합의에는 2005년 9.19 공동성명에 따른 완전하고 검증 가능한 한반도 비핵화도 포함된다며 외교적 수단을 통한 북핵 문제의 “만족스러운 해결”을 바란다고 덧붙였다.
- 상임이사국들은 또한 중동 비핵지대 창설을 내용으로 한 1995년 중동결의가 완전히 이행돼야 한다면서 “이 목표를 위해 진행 중인 어



- 떠난 노력도 지지할 것”이라고 전했다.
- 성명은 “(중동) 지역 국가의 희망과 일치하는, 적절한 새 (비핵)지대 창설을 고려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회의 기간 모든 제안을 검토할 준비가 돼 있다고 강조했다.
 - 1995년 중동결의는 비핵지대 창설을 위한 “실질적인 조치”만 언급했을 뿐 구체적인 실행 방안은 포함하지 않았음. 이에 따라 이집트를 중심으로 한 아랍 비동맹 국가들은 내년 회의를 통해 이 문제를 집중 논의하자고 제안하는 동시에 사실상 핵보유국인 이스라엘에 핵무기 보유 현황 공개와 NPT 가입을 촉구하고 있음.
 - 아흐메드 아불 가이트 이집트 외무장관은 이날 회의 연설문에서 “오늘날 1995년 중동결의를 효과적이고 포괄적으로 이행할 필요성이 갑절이 됐다”면서 결의를 발의했던 영국, 러시아, 미국이 이후 어떤 노력도 기울이지 않았다고 비판했음. 그러나 이스라엘은 중동 평화 협정 체결이 우선이라며 맞서고 있음. 이에 대해 이스라엘을 적시하지 않은 채 모든 국가들이 NPT에 가입하고 핵 군축에 나서야 한다는 원칙적인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 상임이사국은 이어 이란에 의한 핵확산에 “심각한 우려”를 표하면서 이란은 국제사회의 제재에 따라 우라늄 농축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5개국을 아울러 포괄적핵실험금지조약(CTBT) 발효 전 핵실험을 중단하겠다는 약속을 계속 준수할 것이라며 모든 국가의 CTBT 비준을 촉구했음. 이날 엘런 타우치 미 국무부 비확산·군축 담당 차관은 러시아와 체결한 전략무기감축협정(START-1) 후속 협정서를 비준한 뒤 정치적으로 적절한 시기에 CTBT를 의회에 다시 제출해 비준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음.

● 北, 6자 예비회담 참여 中과 사전합의<아사히>(5/5)

- 일본의 아사히신문은 5일 북한의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후진타오 중국 국가주석과 회담 때 6자회담 예비회담 참여의사를 전달하기로 북한과 중국이 사전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보도했음. 이 신문은 또 중국과 북한 관계에 밝은 소식통을 인용해 김 국방위원장의 방문을 계기로 중국이 북한에 대규모 식량지원과 투자를 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 6자회담 예비회담은 6자회담 재개를 위한 정지작업으로 중국이 미국과 북한을 중재하기 위해 지난 2월 관련국에 제안한 것으로, 북한은 지난 3월 이미 미국에 예비회담 참여의사를 전한 바 있다고 이 신문은 보도했음. 이 신문은 김 국방위원장이 후진타오 주석과의 회담 때 6자회담 예비회담 참여의사를 직접 전달함으로써 중국의 체면을 세워주고 중국으로부터 대규모 투자와 식량지원을 얻어내려 하고 있다고 분석했음.
- 이 신문은 이어 북·중 정상회담과 관련, “명확한 회담 일정은 밝혀지지 않고 있으나 지난 4일 다롄에서 이미 정상회담이 있었다는 정보



도 있다”고 전했다. 한편 NHK방송은 김 국방위원장이 4일 다론허 인근의 랴오닝성 정부 소유의 대규모 수산가공업체를 방문해 리커창(李克强) 부총리의 안내로 시설을 둘러봤다고 보도했다.

- 리커창 부총리는 과거 랴오닝성 책임자로 있었기 때문에 중국 북동부 지역의 경제개발에 깊이 관여해왔으며 이 지방과 북한의 경제협력 확대와 관련해 김 국방위원장과 의견을 교환한 것으로 보인다
- 김 국방위원장이 방문한 수산공장은 다양한 어패류 등 수산물을 가공해 수출하고 있으며 근로자가 6천명이 넘는 대규모 업체임. NHK 방송은 북한으로서는 계를 비롯한 해산물이 유력한 수출품이지만 통조림을 가공하는 설비와 기술이 충분치 않아 김 국방위원장이 현대화된 중국의 가공기술을 시찰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 이 방송은 또 4일 오후 특별열차로 다론허을 떠난 김 국방위원장이 5일 베이징에 도착하기 전 텐진을 시찰할 가능성이 있다고 예상했다. 텐진은 외국 기업을 적극적으로 유치해 발전해온 도시임.

● 美 “北 6자회담 복귀 기대”(5/5)

- 미국은 4일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중국 방문과 관련, 북한의 6자회담 복귀에 대한 기대를 거듭 밝혔다. 필립 크롤리 국무부 공보담당 차관보는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김 위원장이 중국 정부와 6자회담 복귀 문제를 논의할 수 있는 상황에서 미국의 입장은 무엇이냐’는 질문에 “우리의 입장은 변하지 않았다”면서 “우리는 북한이 6자회담으로 복귀하는 것을 기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우리가 의미있는 대화를 갖기 전에 긍정적인 비핵화 조치를 포함해 북한이 취해야 할 일들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김정일과) 중국 고위당국자와의 회담이 있다면, 그들(중국)은 우리가 그랬던 것처럼 북한이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6자회담을 통한 것이라는 점을 강조할 것”이라고 말했다.
- 이 같은 언급은 우리 정부가 ‘선 천안함 조사, 후 6자회담 재개’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가운데 나온 것으로, 김 위원장의 방중 이후 나온 미 정부의 북한 6자회담 복귀 희망에 대한 첫 공식적 언급임. 크롤리 차관보는 ‘천안함 사건 진상규명 이전에 6자회담이 먼저 열릴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현재) 진행 중인 한국 정부의 조사가 북한이 6자회담 복귀 결정을 내리기 이전에 끝날 것으로 추정한다”고 밝혔다.
- 이와 관련, 그는 “내가 어떤 것을 예측하는 것은 아니다”라면서 “단지 북한이 이런 결정(6자회담 복귀 결정)을 내리기 위해 수개월을 계속 끌어왔지만 그렇게 하지 못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며, 한국의 조사는 비교적 빨리 끝날 것이라고 예상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북한이 어떤 결정을 내릴지는 모른다”고 덧붙혔음.
- 그는 또 미국 정부가 한국 정부와 같은 입장에 있느냐는 질문에 “(북



한을 제외한 6자회담 참가) 5개 국가가 모두 6자회담에 대해 같은 입장에 있다”면서 “그렇지 않은 한 나라가 북한”이라고 답했음. 이 밖에 그는 중국 측이 김 위원장의 방중을 사전에 통지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알지 못한다”고 말했음.

● ‘러’대사 “6자회담 조속 재개 희망”(5/4)

- 콘스탄틴 브누코프 주한 러시아대사는 “러시아는 6자회담을 될 수 있는 대로 빨리 재개하기를 바라고 있다”고 말했음. 브누코프 대사는 이날 서울 정동 주한 러시아대사관에서 가진 2차대전 승전 65주년 기념 기자회견에서 “러시아는 6자회담에 아주 적극적인 참가국으로 회담 재개에 커다란 관심을 갖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음.
- 그는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방중에 대한 질문에 “중국 대사에게 물어보라”며 즉답을 피하면서도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보장하고 6자회담 재개라는 기본 과제를 성공적으로 해결하는데 중국의 노력을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음. 브누코프 대사는 천안함 침몰 사건에 대해 “46명이 희생된 정말 비극적인 사건”이라면서 “사건 조사가 과학적이고 객관적으로 진행되기를 바라며 구체적인 결과가 나오기를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음.
- 그는 또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대통령은 이명박 대통령에게 친서를 보내 진심으로 애도의 뜻을 표했다”며 “지난 애도 기간에 이를 내가 직접 유명한 외교통상부 장관에게 전달했다”고 소개했음. 브누코프 대사는 회견에서 2차 세계대전 승전에 대한 러시아(구소련)의 공헌을 강조하면서 남·북한 분단의 원인에 대해서는 “미국과 소련이 대립 상태에 있었기에 한국이 유감스럽게 분단됐다”면서 “이는 냉전 시대의 결과물”이라고 말했음.
- 그는 이어 “한국의 분단에 대한 미국 또는 소련의 책임 소재를 밝히려면 역사 전문가들이 만나 객관적인 문건을 가지고 토론하면서 결론을 내려야 할 것”이라며 “러시아는 한국과 수교 시 이미 한국전쟁과 2차대전에 대한 비공개 자료를 전달한 바 있다”고 말했음.
- 브누코프 대사는 최근 잇따랐던 러시아 내 한국인 대상 테러 사건과 관련, “러시아는 이 사건들을 유의 깊게 보고 있다”면서 “한국 유학생이나 국민에게 이 같은 사건이 다시 재발하지 않도록 모든 대책을 세우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올해 하반기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대통령의 방한이 예정돼 있다”며 “이번 방문이 한·러 관계를 새로운 수준으로 발전시키고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 틀림없다”고 말했음.

나. 미·북 관계

● 美 “北, 6자 원하면 의무준수, 도발 중단해야”(5/8)

- 미국 국무부는 7일 북·중 정상회담 결과와 관련, “북한이 해야 할 일들이 있다”라면서 “북한은 국제사회의 의무를 준수해야 하고, 도



발 행위들을 중단해야 한다”라고 비핵화 의무준수 및 도발중단을 요구했음. 필립 크롤리 국무부 공보담당 차관보는 정례브리핑에서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중국 방문 결과와 관련한 미국의 입장을 묻는 질문에 “우리는 북한의 행동들에 의해 좌우될 것”이라면서 이 같이 밝혔음.

- 크롤리 차관보는 ‘김 위원장이 북·중 정상회담에서 6자회담 재개를 위한 유리한 조건 조성을 희망한다는 입장을 밝혔다’는 지적에 “김정일이 6자회담을 위한 유리한 조건을 만들기를 원한다면 그는 우리가 오랫동안 밝혀왔던 것을 (이행하는 것으로) 정확히 (이를) 행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 이와 관련, 그는 ▲국제사회 의무준수 ▲2005년 공동성명의 약속 이행 ▲역내 불안정을 조성하는 도발행위 중단을 북한이 해야 할 구체적인 행동으로 거듭 제시했음. 크롤리 차관보는 이어 ‘김 위원장의 언급이 충분하지 않느냐’는 질문에는 “우리는 북한의 약속 준수와 도발행동들의 중단을 보고 싶으며, 그것이 우리의 초점”이라고 밝혔음.
- 또 ‘김 위원장이 6자회담 재개를 위한 진전에 협력하고 싶다는 뜻을 밝혔다’는 지적에는 “정확히 어떤 협력을 의미하는 것인지 모르겠다”라고 답했음. 이 밖에 그는 베이징 주재 미국대사관 공사가 중국 측으로부터 김 위원장의 방중 결과를 설명했었다면서 북·중 양측이 서로에게 말한 내용을 전해 들었을 것이라고 말했음.

● <김정일 방중이후..재확인된 中 대북정책>(5/7)

-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이번 방중에서 북한 문제와 북핵을 분리하는 중국의 이원적 대북정책이 다시 한 번 확인됐음. 지난해 북한의 2차 핵실험 이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를 중심으로 한 대북제재에 동참했던 중국은 4년 4개월여 만에 방문한 김 위원장에게 ‘최고의 의전’을 베풀며 극진하게 대접했음. 북한의 소행으로 의심되는 천안함 사건의 조사 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한·미 양국은 김 위원장의 방중에 우려를 표명하며 중국 정부에 ‘책임 있는 역할’을 촉구했던 게 사실임. 그러나 중국은 김 위원장의 방중 사흘 전 중국을 방문했던 이명박 대통령에게 한 마디의 귀뜸 없이 김 위원장을 맞아 들임.
- 최근 중국 외교부의 브리핑에서도 이 같은 분위기는 감지됨. 장위(姜瑜) 대변인은 지난 6일 정례브리핑에서 “어떤 국가 지도자의 방문을 받아들이는 것은 중국의 내부 문제며 주권의 범위에 있는 것”이라고 잘라 말했음. 장 대변인은 천안함 침몰 사건에 대한 북한 배후설에 대해서도 “기자가 제기한 (각국 언론들이 북한 소행으로 몰고 가는) 문제는 언론의 보도이자 추측”이라면서 ‘선긋기’를 하고 나섰음.
- 어쨌든 김 위원장의 이번 방중으로 ‘혈맹(血盟)’이라고도 표현되는 북·중 간의 끈끈한 유대관계가 다시 국제사회에 과시된 것은 분명해



보임. 중국은 우리 여론의 반발을 사면서도 김 위원장의 방중 사실을 철저히 함구에 붙여 의리를 지켰고 북·중 정상간 5시간 가까운 회동도 양국관계가 범상치 않음을 보여줬기 때문임.

- 이에 따라 천안함 사건과 북핵 6자회담에 대응하는 우리 정부는 현실을 더욱 냉철하게 인식하고 철저한 준비를 해야 한다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고 있음. 외교 소식통은 “천안함 사건의 대응에는 한국 주도의 대책에 대한 미국과 중국의 공조가 특히 중요하다”며 “북·중간의 특수관계에 대한 정확한 인식을 바탕으로 중국이 중시하는 동북아의 평화를 강조하며 중국을 설득할 수 있는 지혜가 절실히 요구되는 시점”이라고 말했다.

● 美 “천안함 조사후 6자회담 대응 결정”(5/6)

- 미국 국무부는 5일(현지시간) 천안함 조사결과에 따라서 6자회담에 대한 대응방안을 결정한다는 입장을 공식 재확인했음. 국무부는 또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과 후진타오(胡錦濤) 중국 국가주석 간의 정상회담이 6일로 예정돼 있으며 미국은 이 회담에 대한 입장을 중국 측에 전달했다고 밝혔음. 필립 크롤리 국무부 공보담당차관보는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천안함 조사와 6자회담 재개를 투 트랙으로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대해 “북한의 행동은 과거 회담의 속도에 영향을 미쳐왔다”며 “천안함 조사가 마무리되고 난 후 그것이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 결론을 내리겠다는 입장은 분명하다”고 답변했음.
- 크롤리 차관보는 “조사의 결과를 지켜보는 것이 우선”이라고 다시 강조하면서 “우리는 한국의 조사를 전폭적으로 지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크롤리 차관보는 또 “6자회담 프로세스가 진전되기 위해서는 북한이 해야 할 의무들이 실천돼야 한다”며 “그것은 수년 동안 이어져 오고 있는 의무와 약속을 준수하고 이행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 앞서 6자회담 미국 측 수석대표인 성 김 북핵특사도 4일 워싱턴 D.C.에서 비공개로 열린 ‘제4차 서울·워싱턴 포럼’ 만찬에 참석, 천안함 사건과 6자회담 대응 방안에 대해 “한국의 입장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겠다”고 말했다고 복수의 참석자들이 전했다.
- 성 김 특사는 “한국이 현재 진행 중인 천안함 조사를 전적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조사 결과가 나오면 한국 입장이 가장 중요하며, 한국과 협의해 향후 대응방안을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천안함 사고 원인 규명이 최우선 과제”라며 천안함 문제가 명백해지기 전까지는 6자회담이 이뤄지지 않을 것이라는 취지로 말했다.
- 한편 김 위원장의 방중과 관련, 크롤리 차관보는 “김 위원장이 중국에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며, 내일 북한과 중국의 고위관리들 간의 회담이 열릴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 크롤리 차관보는 “우리는 이 회담을 예상하고 이에 대한 우리의 입장을 중국과 공유해 왔다”며 중국 측에 북·중 회담에 대한 미국 측



의 입장을 전달했음을 밝혔음. 그는 “우리는 북한이 그들의 의무를 준수하고 약속을 이행하기를 희망하며, 도발적 행동을 중지하기를 바라고 있다”며 “내일 회담의 결과를 지켜볼 것”이라고 강조했다. 크롤리 차관보는 또 “우선 북한이 어떤 입장을 갖고 있는지를 봐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 이에 따라 김 위원장과 후진타오 국가주석이 만난 것으로 알려진 5일 오후(베이징 시간)의 회동은 공식 정상회담이 아닌 만찬회동일 가능성이 높고, 공식 회담은 6일 이뤄질 것으로 관측됨. 크롤리 차관보는 김 위원장이 베이징에서 6자회담에 복귀할 준비가 돼 있다는 발언을 했는지를 확인해 달라는 요청에 대해 “김 위원장이 중국 어느 곳에서 무슨 말을 했는지 알 수가 없다”고 말했음. 그는 ‘김 위원장의 방중에 후계자로 알려진 3남 김정은이 동행했느냐’는 질문에 대해 “모른다”고 답변했음.

● 美언론, 김정일 방중시기..6자회담 재개 촉각(5/4)

- 미국 언론은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중국 방문이 천안함 침몰사건으로 남북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시기에 이뤄졌다는 점에 주목하면서 이번 방문이 6자회담 재개로 이어질지에 관심을 나타냈음.
- 뉴욕타임스는 3일 인터넷판 기사를 통해 이명박 대통령이 상하이에서 후진타오 중국 국가주석을 만나 천안함 침몰에 대해 논의한 지 불과 사흘 만에 이뤄졌다는 데 의미를 부여했음. 타임스는 김 위원장이 이번 방중을 통해 대북 경제압박 강화에 대한 중국의 지지를 얻어내려는 한국정부의 움직임을 견제할 가능성이 있다는 전문가들의 분석을 소개하면서 중국이 김 위원장 방중을 허용함으로써 잠재적으로 북한의 비핵화와 정치개혁을 후퇴시킬 수 있다는 우려를 부추길 것이라고 지적했다.
- 또한 중국의 이 같은 움직임으로 인해 천안함 침몰에 대한 북한의 개입증거를 확보하려는 한국정부의 노력을 더욱 절박하게 만들 것이라고 이 신문은 덧붙였다. 타임스는 이어 과거에도 김 위원장의 방중이 역내 긴장완화로 이어진 사례가 있다면서 이번에도 김 위원장이 방중이 북한의 6자회담 복귀로 이어질 것이란 기대가 형성되고 있다고 전했다.
- 이와 함께 워싱턴포스트는 6자회담에 대한 북한의 움직임이 없다면 중국이 경제지원이 절실한 북한에 대한 경제적 또는 식량 지원 확대에 동의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김 위원장이 아마도 중국에 경제지원을 대가로 6자회담 복귀에 합의할 것이라고 전망했음.
- 이 신문은 그러나 중국이 북한을 6자회담에 복귀토록 설득하는 데 성공한다 해도 천안함 침몰에 북한 개입 증거가 발견되면 협상을 계속하지 않을 것이란 한국정부의 입장으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고 내다봤음. 포스트는 이번 방중에 후계자로 지목된 김정은 동행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면서 김정은이 동행이 확인되면 김 위원장의



후계 세습을 준비하고 있다는 관측에 더욱 힘을 실어줄 것이라고 말했다.

- 포스트는 또 김 위원장의 이번 방중에 대해 “북한은 다른 나라와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중국 카드를 활용해왔음. 이번 방문은 외교적 전술에 지나지 않으며 실질적인 이슈와 관계된 것이 아니다”라는 장롄 구이 공산당 중앙당교 교수의 분석을 소개하기도 했음.

다. 중·북 관계

● 中 지린성 창바이, 北 변경관광 개통(5/9)

- 중국 지린(吉林)성 바이산(백산)시 창바이(長白)조선족자치현이 지난 1일부터 북한 변경관광을 위한 통행증 발급을 시작했다고 길림신문이 9일 보도했음. 이에 따라 외지인들도 바이산시나 창바이현에서 통행증을 발급받아 창바이 통상구를 통해 북한 변경관광에 나설 수 있게 됐다. 서류 접수 후 5일이면 통행증이 발급됨.
- 백두산과 인접해 있고 북한 혜산과 마주한 창바이현은 2007년 통상구를 건설, 대북 교역을 시작했으나 북한 변경관광은 이뤄지지 않았음. 중국은 북한을 관광하는 자국민들 사이에 도박이 성행하자 2005년 북한 변경관광을 전면 중단시켰다가 지난해 4월 단둥(丹東)과 투먼(圖們), 안투(安圖) 등 일부 지역에 한해 재허용했으며 지난달에는 연변 지역 변경관광과 북한 내륙 단체관광을 전면 재개했음.

● <김정일訪中> 中, 뭘 얻었나(5/6)

-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4년만의 방중을 통해 중국은 어떤 실익을 챙겼고 어떤 손해를 감수해야 하는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음. 아직 김 위원장의 방문과 관련한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되지 않아 이른 감이 없지 않지만 베이징 외교가에서는 우선 김 위원장의 방중을 통해 중국이 북한과의 특수한 관계를 재확인한 효과를 누린 것으로 분석하고 있음.
- 김 위원장은 후진타오(胡錦濤) 국가주석과의 5일 정상회담에서 “6자 회담 준비가 됐다”는 의지를 밝힌 것으로 전해지고 있음. 한반도 비핵화 문제와 관련, 후 주석은 동북아 평화와 안정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북한의 6자회담 복귀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김 위원장은 북핵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은 피하면서도 비핵화 의지를 밝히면서 6자회담에 나갈 준비가 돼 있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음. 북한이 이번 회담에서 6자회담 참가의지를 밝힘으로써 의장국인 중국의 체면을 세워줄뿐더러 국제정치 무대에서 중국의 위상과 역할을 크게 높여준 것으로 분석됨.
- 다시 말해 국제사회에서 고립된 북한을 ‘컨트롤’해 6자회담에 나올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국가는 중국밖에 없다는 것을 과시한 것으로 볼 수 있음. 중국 외교부 역시 이 같은 내용의 연합뉴스 보도에 대해



사실상 긍정적인 입장을 취했음.

- 장위(姜瑜) 외교부 대변인은 김 위원장 방중 마지막 날인 6일 정례브리핑에서 김 위원장이 후 주석에게 6자회담에 복귀할 준비가 되었다는 입장을 밝혔다는 연합뉴스 보도를 부인하지 않은 채 북핵 6자회담의 조속한 재개를 위해 주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음.
- 장 대변인의 이 발언은 김 위원장이 전날 열린 후 주석과의 정상회담에서 6자회담에 대한 긍정적인 입장을 전달했다는 관측에 무게를 실어주고 있음.
- 베이징의 유력 외교 소식통은 “북한이 중국에 6자회담 복귀 약속을 하지 않았다면 중국이 이번에 김 위원장의 방중을 허용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해 모종의 사전 합의가 있었을 것임을 시사했음. 중국 으로서는 북한으로부터 6자회담에 긍정적인 입장을 전달받는 반대급부로 경제협력과 경제원조를 약속했을 것으로 관측됨.
- 경제원조는 중국 입장에서는 북한에 대한 영향력 강화란 정치적 의미가 있으며 경제협력은 라진항 개발 등을 통해 막혔던 동해 바닷길을 뚫는다는 점에서 경제적 의미가 적지 않음. 중국 역시 지난해 두만강 유역 개발 프로젝트인 ‘창지투(창춘-지린-두만강) 개방 선도구’ 사업을 국가사업으로 확정하면서 동해로 뻗어나갈 수 있는 라진항 진출에 의욕을 보이고 있음. 중국은 북한으로부터 2008년 라진항 1호 부두 전용권을 확보한 데 이어 지난해 11월에는 라진항 국제물류기지 합작 개발에 대해서도 북한과 합의했음.
- 이 같은 북·중 경제협력은 중국 입장에서 동해안의 교두보를 확보하는 동시에 통일 한반도 시대를 대비해 북한에서 확고한 우선권을 갖는 효과도 누릴 수 있음. 그러나 김 위원장의 방중으로 인해 중국 측이 감수해야 할 손해도 적지 않아 보임.
- 우선 김 위원장의 방중을 전격적으로 수용함으로써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된 한국과 외교적인 이상기류를 초래한 점을 들 수 있음. 후진타오(胡錦濤) 국가주석은 이명박 대통령과 지난달 30일 가진 한·중 정상회담에서 김 위원장의 방중을 전혀 예고하지 않은 채 천안함 문제와 관련, 희생자들에게 위로의 뜻을 전달하면서 “한국 정부가 이번 사건을 과학적이고 객관적으로 조사하고 있는 데 대해 평가한다”고 말했음.
- 그런 상황에서 이 대통령과 정상회담 닷새 뒤인 5일에는 북·중 관계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김 위원장과 북·중 정상회담을 진행한 것임. 이를 두고 한국 외교부와 통일부가 장신선 주한 중국대사에게 김 위원장의 방중을 예고하지 않았다고 항의의 뜻을 전달했고 정치권에서도 실망스럽다는 불만 표출이 잇따랐음.
- 중국 역시 가만있지 않았음. 장위 대변인은 6일 정례브리핑에서 “어떤 국가 지도자의 방문을 받아들이는 것은 중국의 내부 문제며 주권의 범위에 있는 것”이라며 우리 정부의 불만 표출에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음. 장 대변인은 천안함 침몰사건에 대한 북한 배후설에 대해



선 “이는 언론의 보도이자 추측일 뿐”이라면서 선긋기를 하는 태도를 보였음.

- 중국 정부가 감내해야할 손해는 또 있어 보임. 국제사회에서의 이미지가 실추가 그것임. ‘죽의 장막’에 가려졌던 중국은 개혁개방을 통해 눈부신 경제발전을 이룩해 이젠 미국에 버금하는 주요2개국(G2)로 성장했음. 2008년 베이징 올림픽을 성공적으로 치러내고 상하이(上海) 엑스포까지 열고 있는 중국을 빼놓고는 국제적 문제를 얘기하기 어려울 정도임.
- 개혁개방 정책을 천명하면서 책임 있는 대국을 자처해온 중국이 유독 김 위원장의 방중만큼은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으로 계속 비밀에 부쳐 책임 있는 대국의 자세를 보여주지 못했다는 비판에 직면한 것임. 과거 김 위원장이 방중할 때 북한의 요구에 따라 방중이 완전히 마무리되기 전까지는 방중 사실을 공개하지 않았지만 중국의 위상이 커지면서 전 세계 언론과 국제사회의 비난의 수위도 높아지고 있음.
- 중국 외교부는 당對당 교류가 외교부 소관사항이 아니란 공색한 변명과 함께 김 위원장이 중국에 머물던 4일과 6일 브리핑에서도 “공개할 정보가 없다”는 기존 입장을 앵무새처럼 되풀이했음. 외신 기자들은 “중국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면서 “북한의 요구에 따른 과거의 관행이라고 해도 이를 깨뜨리지 않고서는 중국을 진정으로 책임 있는 대국으로 보기 어렵지 않겠느냐”는 불만을 쏟아냈음.

● <김정일訪中> 어떤 ‘경협’ 논의됐을까 (5/6)

-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이 3박4일간의 방중기간 후진타오(胡錦濤) 국가 주석과 원자바오(溫家寶) 총리 등 중국 지도부와 잇따라 회담하면서 북·중간 경협 문제가 심도있게 논의됐을 것으로 보임. 북·중간 경협 현안 가운데 가장 관심을 끌만한 것은 역시 라진항 합작 개발임. 라진항을 통해 동해 뱃길을 확보하려는 중국과 화폐 개혁 실패로 곤궁한 처지에 놓이면서 돌파구 마련이 시급한 북한의 이해관계가 일치하기 때문임.
- 북·중 경협의 구체적인 밑그림이 나와 있는 것도 현재로서는 라진항 합작 개발뿐임. 북한은 2008년 중국에 라진항 1호 부두 전용권을 부여한 데 이어 지난해 11월에는 라진항 국제물류기지 합작 개발에 대해서도 중국과 합의했음. 라진항을 중계무역과 수출 가공, 보세 물류 등 국제 교역 단지로 개발하겠다는 것임.
- 중국 지린(吉林)성은 이미 라진항 개발에 소요되는 30억 위안(5천억 원)의 외자도 유치했다고 밝혔음. 김 위원장이 지난해 12월 18년 만에 라선시를 방문한 데 이어 올해 1월에는 라선시가 특별시로 승격되는 등 북한도 라진항 개발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음.
- 김 위원장이 이번 방중 첫 행선지로 다롄(大連)을 선택, 물류 전용 부두인 3호 부두를 시찰한 것도 라진항 개발의 ‘롤 모델’로 삼기 위



한 것이라는 분석임. 중국 역시 지난해 두만강 유역 개발 프로젝트인 ‘창지투(창춘-지린-두만강) 개방 선도구’사업을 국가사업으로 확정하면서 동해로 뻗어나갈 수 있는 라진항 진출에 의욕을 보이고 있음.

- 지난 3월 훈춘-북한 원정리를 잇는 두만강 다리 보수 공사에 착수했으며 원정리-라진항 고속도로 공사도 서두르겠다는 입장임. 이번 북·중간 정상회담에서는 라진항 물류기지 합작개발에 대한 논의는 물론 중국이 새로운 동해 진출 루트로 관심을 쏟는 투먼-청진 벨트 경협 방안도 거론됐을 것으로 보임. 또 다른 경협 주요 의제로 압록강의 섬 황금평과 위화도의 자유무역지구 개발이 올랐을 가능성이 큼.
- 북한은 최근 황금평, 위화도 개발권을 갖고 있는 룡악산지도중국이나서 외자 유치에 부쩍 공을 들이고 있음. 이번 회담에서도 이 일대 개발에 대한 중국의 적극적인 투자와 지원을 요청했을 가능성이 거론되는 이유임. 이와 함께 국가개발은행과 조선대풍국제투자그룹을 통한 외자 유치에 중국이 적극 협조할 것도 요청했을 것으로 보임.
- 북한은 10년 내 도로와 철도, 항만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경제인프라 10년 계획’을 추진하겠다고면서 대풍그룹을 통해 100억 달러의 외자 유치를 목표로 세웠지만 지난해 5월 핵실험 이후 유엔 대북제재가 가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 이외에는 자금 조달을 기대할 곳이 여의치 않은 형편임.

● <北中정상회담> 최대의제는 6자회담과 경협(5/6)

-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이 후진타오(胡錦濤) 국가주석과의 5일 정상회담에서 “6자회담 준비가 됐다”는 의지를 밝힌 것으로 전해져 관심이 모아지고 있음.
- 북핵 6자회담이 장기 교착된 상태에서 지난 3월 발생한 천안함 침몰 사건에 북한 배후설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김 위원장의 이런 의지 표명이 향후 한반도 주변 정세에 큰 영향을 줄 것으로 관측됨. 천안함 침몰사건과 관련해 우리 정부는 철저한 조사 후 6자회담에 대한 입장을 정한다는 입장인 반면 중국은 이를 이해한다면서도 동시에 6자회담 조기 재개 의지를 갖고 있다고 밝히는 등 ‘미묘한’ 입장 차이를 보여왔다는 점에서 북·중 정상회담 후 중국이 어떤 입장을 취할지에 이목이 쏠림.
- 사실 시기적으로 김 위원장의 방중이 지난달 29일 힐러리 클린턴 미국무장관-다이빙궈(戴秉國) 중국 국무위원의 전화통화를 통한 6자회담 재개 논의, 그리고 3일 워싱턴에서의 핵무기비확산조약(NPT) 평가회의 개막 시점에 맞춰 이뤄졌다는 점에서 6자회담 문제가 이번 북·중 정상회담의 최대 의제가 됐을 것이라는 지적임.
- 아울러 7일 후 주석의 러시아 방문, 이달 24~25일 미·중 전략경제 대화가 예정돼 있는 등 6자회담 주요 당사국간에 ‘대화 일정’이 지속돼 이번 회담에서 뭔가 돌파구가 마련될 경우 6자회담 재개 논의가



-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 일각에서는 북한이 이번 회담에서 6자회담 참가의지를 밝힘으로써 의장국인 중국의 체면을 세워줄뿐더러 국제정치무대에서 중국의 위상과 역할을 크게 높여주고 중국은 그 반대급부로 경제협력과 경제원조를 약속했을 것이라는 추론을 내놓고 있음.
 - 그러나 북한은 이미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 해제와 평화협정 논의의 우선순위를 높이라는 6자회담 복귀의 전제조건을 내세워왔고 미국은 그런 약속을 해주기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해온데다 천안함 배후설도 명확히 해명되지 않은 상태에서 '6자회담 준비가 됐다'는 김 위원장의 발언이 얼마나 실현가능성이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논란이 여지가 있음. 다만 중국은 김 위원장의 진전된 발언을 미국에 전해 북미 양자접촉을 성사시키고 6자 예비회담을 거쳐 본회담으로 유도할 것으로 관측됨. 중국은 이미 북미대화→예비회담→본회담의 3단계 수순을 6자회담 관련국에 통보한 바 있음.
 - 천안함 문제와 관련, 그간 북·중 정상회담에서는 민감한 문제를 거론하지 않았다는 관례로 미뤄볼 때 두 정상 간에 천안함 침몰사건에 대한 논의가 있었을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게 베이징 외교가의 분석임. 대신 정상회담에 앞선 실무협약에서 북측은 중국 측에 천안함 침몰사건과 무관하다고 해명하면서 그럼에도 남한 정부 주도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등의 국제무대로 이 문제가 비화할 경우 중국의 협조를 바란다는 입장을 전하고 '북·중 연대 강화'를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 이에 중국 측은 한국 측이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조사를 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만큼 조사 결과를 기다려보자는 입장을 전했을 것으로 보임. 그러나 중국이 천안함 침몰사건에 북한 배후설이 비등한데도 불구하고 김 위원장의 방중을 '허용'한 점으로 미뤄 이 문제와 관련한 중국의 저울추는 북한 쪽에 기운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옴.
 - 또 김 위원장이 베이징 방문에 앞서 무려 이틀 동안 다롄(大連)과 텐진(天津)을 방문, 항만과 산업시설을 시찰할 정도로 경제개발 의지를 보였다는 점에서 정상회담에서 경협문제가 심도있게 논의됐을 것으로 보임. 특히 북한 내 중국통으로 조선대풍국제투자그룹의 초대 이사장을 겸임하고 있는 김양건 노동당 통일전선부장이 정상회담에 참석한 것으로 알려져 라진항 개발문제도 논의됐을 것이라는 관측임.
 - 사실 북한이 유엔 안보리의 대북제재로 국제적으로 고립된 데다 지난해 말 화폐 개혁으로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돼 중국의 도움이 절실한 것은 사실이지만 중국 역시 경협을 통해 북한으로부터 '언을 게 많다'는 지적임.
 - 실제 중국은 이미 지린(吉林)성의 창춘에서 지린, 두만강 유역을 2020년까지 경제벨트로 이어 낙후지역인 동북3성의 중흥을 꾀하자는 이른바 '창·지·투(長吉圖) 개발 계획'을 추진 중이고 이 계획의



핵심인 ‘동해 출항권’을 얻으려면 북한의 협력이 필수적임.

- 북한은 이미 라진항 제1호 부두 10년 사용권을 중국의 기업에 줬으며 추가 논의를 진행하는 등 양국 간 경제협력이 긴밀해지고 있음. 중국 측은 작년 10월 원자바오(溫家寶) 총리의 방북을 통해 창지투 계획을 통한 양국 경제 카드로 북한을 강하게 설득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음. 김 위원장은 또 3남 정은으로의 후계문제를 거론했을 가능성도 거론됨.
- 뇌졸중 등으로 김 위원장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데다 북·중 양국이 그간 노동당 대 공산당 차원에서 서로 최고지도자를 추인해왔고 후주석 후임으로 유력한 시 부주석도 그런 까닭에서 내부 절차를 거쳐 2008년 6월17일 방북했던 전례가 있기 때문임.
- 그러나 이번 방중에서 김정은으로 추정되는 인물이 모습을 드러낸 적이 없는데다 북한에서도 김정은이 공식화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이번에는 후계구도 논의가 없었을 것이라는 관측도 있음.

● <北中정상회담> 베이징 방문 이모저모(5/6)

-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 일행은 방중 사흘째인 5일 베이징 인근의 해안도시 톈진(天津)을 둘러본 뒤 베이징에 도착, 영빈관인 닌타이(釣魚臺)에 여장을 풀고 인민대회당에서 후진타오(胡錦濤) 국가 주석 등 중국 지도부와 정상회담을 했음.
- 김 위원장은 후진타오 주석은 5일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4시간 30분간이란 긴 시간 동안 자리를 함께했음. 4일 저녁 다롄을 출발, 이날 새벽 베이징에 도착할 것으로 예상됐던 김 위원장 일행이 오전까지 도착하지 않아 방중 경로와 관련한 갖가지 설이 나돌았으나 오전 8시께(한국시간 오전 9시께) 톈진에 모습을 드러내면서 궁금증이 풀렸음.
- 4시간 30분간 회담 및 만찬: 김정일 위원장과 후진타오(胡錦濤) 중국 국가주석은 5일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4시간 30분간이란 긴 시간 동안 자리를 함께했음. 김 위원장은 미리 도착한 후 주석과 인민대회당에서 오후 5시30분부터 약 7시까지 정상회담을 한 뒤 만찬장으로 자리를 옮겨 오후 10시께까지 후 주석이 주재한 환영 만찬에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위원장을 태운 의전차량은 이날 오후 10시15분께 인민대회당을 빠져나가 10시26분께 숙소인 닌타이로 들어갔음. 양국 정상은 회담에서는 양국 경제 협력문제와 대북지원문제, 6자회담 재개문제 등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천안함 사태에 대해서는 실무진간 사전접촉에서 의견이 교환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음. 통상 정상 간의 만찬은 오후 9시를 넘기지 않는 것이 관행이지만 이례적으로 오랫동안 만찬을 한 것은 북중 간 우호관계를 과시하려는 의도도 담긴 것으로 풀이됨.
- 닌타이, 교묘한 취재 통제로 원성 사: 김 위원장 일행의 숙소인 닌타이 정문 앞에는 이날 아침 일찍부터 외신 기자 20여명이 몰



려 취재 경쟁을 벌였음. 경찰은 노골적인 취재 통제는 없었지만 교묘하게 취재진을 방해해 김 위원장 일행의 다오위타이 진입을 취재하려던 취재진의 원성을 샀음. 경찰은 다오위타이 정문이 보이는 도로의 인도 한쪽에서만 촬영을 할 수 있도록 했으며 처음에는 정문 300m가량까지는 접근을 허용하더니 북한 방중단 도착이 임박해지자 취재진을 100m 뒤로 더 물러서게 했음. 또 취재진 앞에 경찰 대형 버스로 '장막'을 쳐 정문 한쪽을 완전히 가렸고 남은 한쪽도 경찰을 배치하고 바리케이트를 설치해 김 위원장의 차량 노출을 최소화, 취재진들 사이에 불만이 터져나왔음. 정상회담 장소인 인민대회당 사방에는 통제선을 설치하고 곳곳에 경찰을 배치하는 등 원천봉쇄했음. 또 이날 오후 김 위원장의 의전차량이 지나간 텐진의 영빈관 앞 도로에서도 교통통제와 함께 취재진과 시민들의 사진 촬영을 철저히 감시하는 등 민감한 반응을 보였음. 경찰관들은 현장을 찾은 취재진에게 중국 법률상 사진 촬영이 불허했다면서 밀착 감시를 하는가 하면 누구 때문에 교통통제를 하는지 궁금해 구경나온 시민들을 해산시키려는 모습이었음.

- 정상회담 개최에도 中언론 침묵: 이날 오후 3시40분(한국시각 오후 4시40분) 다오위타이에 도착, 여장을 푼 김 위원장 일행은 1시간여 뒤인 오후 5시10분께 인민대회당으로 이동, 후진타오 국가 주석을 비롯한 중국 지도부와 정상회담을 열었음.
- 그러나 지난 3일 중국에 도착한 이후 일부 매체가 외신을 인용, 보도했을 뿐 김 위원장의 방중 사실을 함구해온 중국 언론들은 정상회담까지 열렸음에도 방중 사흘째인 이날까지 침묵을 지키고 있음. 중국 언론들의 이런 관행은 김 위원장의 방중 때마다 되풀이됐던 관행으로, 외부에 노출되는 것을 극히 꺼리는 북한 측을 위한 배려로 풀이됨. 대북 전문가들은 전례에 비춰볼 때 김 위원장 일행이 귀국한 이후인 6~7일께 정상회담 소식을 비롯한 김 위원장의 방중 관련 뉴스를 한꺼번에 쏟아낼 것으로 보고 있음.
- 그러나 일부 매체가 연합뉴스 등 외신을 인용, 김 위원장의 사진까지 잇따라 보도한 데다 인터넷의 발달로 웬만한 사람들은 그의 방중 사실을 이미 알고 있어 '언론 통제'가 과거 방중 때와는 달리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음.

● <김정일訪中> 다롄 3부두 왜 방문했나(5/4)

-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이 방중 이틀째인 4일 오전 다롄(大連)시 경제기술개발구 내 제3부두 일대를 시찰,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음. 김 위원장 일행은 이날 오전 9시30분(한국시간 10시30분)께 숙소인 푸리화(富麗華)호텔을 나서 30km 떨어진 다롄경제기술개발구에 도착, 이곳에 건설 중인 3부두를 1시간여 시찰했음. 40만㎡ 규모의 이 3호 부두는 컨테이너 적재, 보세물류, 자동차 선적 등을 하는 부두임.



- 북한은 2008년 다롄의 창리그룹에 라진항 부두 1호 부두 사용권을 준 데 이어 지난해 11월 지린(吉林)성과 라진항을 중계무역과 보세, 수출가공이 가능한 국제 물류기지로 합작 개발키로 합의함. 당시 지린성 발전연구센터 류시밍(劉庶明) 거시경제처장은 “라진항을 중계 무역과 수출 가공, 보세 물류 등 국제 교역 단지로 합작 개발키로 북한과 합의했다”고 밝힘. 그러면서 이미 세계화상(華商)연합회와 미국의 모 그룹이 라진항 개발을 위해 지린성과 투자 협약을 체결했으며 투자 규모가 30억 위안(5천억 원)이라고 소개함.
- 화폐 개혁 실패 이후 경제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는 북한으로서도 라진항 물류기지 개발에 적극적인 의욕을 보이고 있음. 지난해 12월 김 위원장이 18년 만에 라선시를 방문한 데 이어 올 1월에는 라선시를 특별시로 승격시킴. 김 위원장이 이날 다롄개발구 3부두를 방문한 것 역시 라진항 개발에 대해 상당한 의욕이 있음을 보여준 것으로 해석됨. 그가 라진항 개발에 큰 관심이 있다는 점을 부각시킴으로써 라진항 개발에 대한 중국의 적극적인 투자를 이끌어내려는 의도도 깔려 있는 것으로 보임.

● “외교부, ‘김정일 방중’ 관련 中대사 어제 초치”(5/4)

- 신각수 외교통상부 1차관은 3일 오후 장신썬 주한 중국대사를 외교통상부 청사로 불러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중국 방문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설명했다고 외교소식통이 4일 전함.
- 신 차관은 이 자리에서 김정일 방중과 관련한 우리의 관심과 입장을 표명하고 북·중 협의 내용과 결과를 알려달라는 뜻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짐. 이에 대해 장 대사는 “알겠따”며 “한국 정부의 뜻을 본국 정부에 전달하겠따”고 말한 것으로 전해짐.
- 외교가에서는 중국 측이 김 위원장의 방중을 사흘 앞둔 시점에 열린 한·중 정상회담에서 한마디 사전 언질을 주지 않은데 대한 아쉬움을 표시하고 우리 정부의 우려를 전달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음.

● 김정일, 다롄시내 개발구 시찰(5/4)

-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이 방중 둘째 날인 4일 다롄(大連)시 교외에 있는 개발구를 시찰함. 김 위원장 일행을 태운 의전차량들은 이날 오전 9시30분(한국시간 10시30분)께 숙소인 푸리화(富麗華)호텔을 떠나 30km 떨어진 다롄경제기술개발구에 도착, 이곳에 건설 중인 제3부두를 시찰하고 1시간 30분 만에 호텔로 돌아왔다고 현지 소식통들이 전함.
- 김 위원장 일행의 이날 개발구 시찰은 북한의 라선시 항만 개발의 모델로 삼기 위한 것으로 관측됨. 이 개발구에는 LS산전, 한라공조, 포스콘, 파크랜드 등 한국 기업들과 일본 기업 등이 입주해 있음.
- 한편 김 위원장 일행을 태우고 북·중 국경을 넘은 특별열차는 이날



오전 10분30분께 다렌 역에 도착, 대기 중임. 김 위원장 일행은 이 열차 편으로 베이징으로 향할 것으로 예상됨. 김 위원장 일행은 당초 푸리화 호텔 신관 전체를 이날 오후 7시까지 예약, 밤에 베이징으로 출발할 가능성이 커 보임. 김위원장 일행은 이날 오전 호텔을 나설 때 짐을 꾸려 나왔고 이들이 들어선 항만도로는 베이징으로 가는 길목인 진저우(錦州)방향이어서 베이징으로 향했다는 관측을 낳았음.

● <김정일訪中> 北·中정상 홍루몽 관람할 듯(5/4)

-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과 후진타오(胡錦濤) 중국 국가주석이 오는 6일 중국 베이징에서 시작하는 가극 ‘홍루몽’을 함께 관람할 가능성이 커 보임.
- 북한 피바다가극단은 오는 6일부터 9일까지 198명의 연기자들이 출연하는 대형 가극 ‘홍루몽’을 베이징(北京)TV 대극장 무대에 올릴 예정임. 공연 홈페이지에 따르면 이 공연은 6~9일 나흘간 진행될 예정이지만 실제 6~7일은 일반인에게 공개되지 않고 8~9일 오후 7시30분 2번의 공연만 일반 관객들을 상대로 입장권을 판매하고 있음.
- 공연 관계자는 “6~7일 이틀 공연은 일반인에게 공개되지 않는다”면서 지도자들을 위한 특별공연이냐는 질문에는 “이유를 말해주기 어렵다”고 말함. 이에 따라 김정일 위원장과 후 주석이 6~7일 이틀 중 특별 비공개 공연을 관람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관측됨.
- 중국의 고전소설을 개작한 홍루몽은 1961년 김일성 주석과 중국 지도자 덩샤오핑(鄧小平)이 함께 중국에서 관람한 작품으로 북·중간 우호의 상징으로 여겨지고 있음. 북한은 김일성 주석이 1961년 중국 방문 중 가극 홍루몽을 관람했고, 이어 상하이 월극(越劇)단이 그해 가을 방북해 홍루몽을 공연한 것을 계기로 김 주석의 지시로 창극 형태로 제작함.
- 이 작품은 지난해 ‘북·중 친선의 해’를 맞아 김정일 위원장의 지도로 현대판 가극으로 새롭게 태어남. 원자바오(溫家寶) 총리가 지난해 10월 방북했을 때 김 위원장의 안내를 받으며 평양대극장에서 관람한 작품이기도 함.

● <김정일訪中> “中 지지확인 목적도”(5/4)

-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중국 방문은 경제적 지원 이외에 천안함 침몰사건과 후계구도에 대한 중국의 지원을 확인하려는데 목적이 있다고 영국 더 타임스, 홍콩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SCMP) 등의 서울특파원으로 재직 중인 앤드루 새먼이 주장함.
- 앤드루 새먼은 4일 SCMP에 실린 서울발 기사를 통해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전격적인 중국 방문이 유일한 동맹국인 중국으로부터 경제적 지원을 구하는 한편 천안함, 후계구도 등에 대한 지지를 확보하



려는데 목적이 있다고 지적함.

- 먼저 새먼 특파원은 미국 랜드연구소의 스콧 헤럴드 교수와 한국의 북한 문제 전문가들을 인용해 김 위원장이 이번 중국 방문기간 천안함 침몰 사건으로 고조되고 있는 남·북간 긴장관계에 대해 중국 측과 논의하게 될 것으로 내다봄. 헤럴드 교수는 김 위원장의 이번 중국 방문은 지난주 이명박 대통령의 중국방문에 대응하려는 성격이 있다면서 김 위원장이 후진타오(胡錦濤) 국가주석 등 중국 지도부와의 회담에서 천안함 사건을 논의하게 될 것으로 내다봤다고 새먼 특파원은 전함.
- 최진욱 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장은 “김 위원장은 천안함 사건으로 곤란한 처지에 놓여있으며 국제적인 압력을 피하기를 원하고 있다”면서 “그는 6자회담 복귀를 통해 부분적으로 압력을 피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해 김 위원장이 천안함 사건으로 궁지에 몰린 국면을 6자회담 복귀 선언을 통해 돌파하려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관측함.
-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김 위원장은 중국 측에 한국이 북한을 곤경에 빠뜨리기 위해 천안함 사건을 조작했다고 설득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함.
- 아울러 북한 문제 전문가들은 김 위원장이 이번 중국 방문에서 3남 김정은을 후계자로 선택했다는 점을 중국 지도부에 설명하고 지지를 구하게 될 것으로 예상함.
- 그러나 전문가들은 김정은이 김 위원장의 중국 방문에 동행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견해를 밝힘. 최진욱 북한연구실장은 “김정은은 아직 아무런 공식적인 직함도 갖고 있지 않다”면서 “김 위원장이 그를 중국 방문에 동행하게 하기에는 시기가 너무 이르다”고 말함.
- 물론 북한 전문가들은 김 위원장의 중국 방문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 경제적 지원이라는 점을 빼놓지 않고 강조했다고 새먼 특파원은 전함.
- 한편 문화보(文匯報), 대공보(大公報) 등 홍콩의 중문 신문들은 연합뉴스 보도 등을 인용해 김 위원장의 북한 방문 사실을 간략하게 보도했을 뿐 별도의 분석기사는 실지 않음.

● <김정일訪中> “천안함 문제가 방중시점 결정”(5/4)

- 일본 언론들은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중국 방문 시점과 관련, 북한과 중국 양측이 한국의 천안함 침몰 원인이 규명되기 전이 적합하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함.
- 요미우리신문은 4일 한국의 해군 초계함인 천안함의 침몰 문제가 김 국방위원장의 방중 시기를 좌우한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함. 이 신문은 중국 소식통을 인용해 “중국으로서는 천안함 침몰 원인이 규명되기 전인 지금을 김 국방위원장의 방문을 수용할 수 있는 타이밍으로 보고 조기 방중을 유도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전함. 중국은 김정일 체제 유지를 위해서는 북한에 대한 경제지원이 불가피하지만 만약



천안함 침몰이 북한의 소행으로 공식 확인된다면 김 국방위원장의 방문을 받아들이기 쉽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임.

- 이 신문은 “한국에서는 북한에 의한 어뢰공격이 천안함 침몰의 원인이라는 견해가 강한 상황이며, 이달 말 공식 조사결과가 북한의 공격에 의한 것으로 나오면 한국과 미국은 유엔안보리에 제재를 요구하고 나설 것이며 중국도 운신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전함.
- 마이니치신문도 한국의 전문가를 인용, 김 국방위원장이 중국 방문을 서두른 것은 한국이 천안함 침몰 원인을 공식 발표하기 전 북한에 쏠린 의혹을 부인하고 이해를 구할 필요성을 느꼈기 때문일 것이라고 보도함.

● <김정일訪中> “승계·천안함 해결이 목적”(5/4)

- 미국 랜드연구소의 국제안보 수석 애널리스트이자 북한문제 전문가인 브루스 베넷 박사는 3일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중국 방문은 후계자 문제, 천안함 침몰 사건, 열악한 경제 사정과 중국의 지원 문제 등 최소 4가지 이상의 목적을 담고 있다”고 분석함.
- 베넷 박사는 이날 연합뉴스와의 이메일 인터뷰에서 “중국 방문을 계기로 북한이 6자 회담에 복귀할 가능성이 있으나 천안함 침몰 사건에 대한 한국과 미국 등의 대응 수위에 따라 6자 회담의 미래가 다시 불투명질 수 있다”고 전망함.
- 그는 “김 위원장의 방중에 후계자로 거론되는 아들 김정은이 동행하지 않았다면 중국이 김정은의 승계 문제에 대해 그다지 완전한 지지를 보내지 않을지도 모른다는 김 위원장의 우려가 여전히 남아 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고 말함.
- 다음은 베넷 박사와의 일문일답.

--- 김 위원장의 중국 방문 목적은.

▲ 최소한 4가지 정도로 요약될 수 있다. 김정은 후계 체제를 중국으로부터 인정받고 싶은 게 첫 번째고 천안함 침몰 사건에 대한 한국과 미국의 군사적 대응을 막는 억제력을 높이는데도 목적이 있다. 천안함 침몰 사건은 북한과 무관하다는 주장을 펼 것이다. 그러나 침몰 사건 때문에 한국과 미국이 군사적으로 대응해 온다면 그에 대한 반격도 불가피하다는 점을 중국에 주지시키고 싶은 것으로 보인다. 또 북한의 식량난 등을 해결하기 위한 경제적 지원을 요청할 것으로 보인다. 중국의 지원이 없으면 중국내 탈북자의 유입이 더욱 늘어날 수 있다는 점을 중국 측에 알리고 도움을 구할 것이다.

--- 중국 방문이 5월 초에 이뤄진 데 의미가 있다고 보나.

▲ 방중설이 한 달 전부터 계속 제기됐는데 다소 늦춰진 것은 김 위원장의 건강 문제와 관련돼 있을 가능성이 있다. 허약한 모습을



외부에 공개하긴 원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개인적 건강 문제에도 중국 방문에 나선 것은 천안함 침몰 사건 진상에 대한 한국 정부의 공식 발표가 임박했고 중국과의 공동 대응이 절실한 시점이기 때문이다. 또한 악화된 식량난 등 경제 사정을 방지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본다. 지금은 연중 식량난이 가장 심각한 시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 북한의 승계 문제가 무난히 진행되리라고 보나.

▲ 중국의 지지를 얻어내는 게 김 위원장으로선 중요한 문제다. 북한 내부에서 김정은 후계 문제가 완벽하게 정리된 것으로 보진 않는다. 다소간 승계 문제를 둘러싼 북한 내부의 동요 움직임이 감지된다. 이번 방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김정은이 동행했을 가능성이 있으나 동행하지 않았다면 중국으로부터 아직 완전한 지지를 받지 못할지도 모른다는 김 위원장의 우려를 보여주는 신호가 될 수 있다.

--- 6자 회담 복귀 가능성은.

▲ 현재 상황에 비춰 중국 방문을 계기로 김 위원장이 6자 회담 복귀를 선언할 가능성이 있다. 물론 미국 등에 대해 복귀에 상응하는 인센티브를 요구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천안함 침몰 사건이 여전히 변수다. 한국과 미국이 천안함 침몰 사건에 대한 '심각한' 대응에 나선다면 북한은 이를 빌미로 다시 철수할 것이고 그 책임을 한국과 미국에 돌릴 것이다. 천안함 침몰 사건에 대한 한국과 미국의 군사적 대응을 가급적 억제하면서 향후 벌어질지도 모를 물리적 충돌 사태 등의 책임을 한국과 미국에 돌릴 수밖에 없는 현실적 불가피성을 중국 측에 설명하고 지지를 구하려 할 것으로 예상된다.

● <김정일訪中> 후진타오 동선에도 관심집중(5/4)

-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방중으로 후진타오(胡錦濤) 중국 국가주석의 동선에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음. 후 주석의 초청으로 방중한 김 위원장이 북·중 정상회담을 언제 어디서 하게 될지에 이목이 쏠리고 있기 때문임. 지도자의 일정은 보안 사항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중국 언론의 관련 보도를 통해서만 후 주석의 최근 행적을 확인할 수 있음.
- 후 주석은 지난달 29일 상하이(上海) 엑스포 참석차 상하이에 도착, 30일 이명박 대통령과 회담한 것을 포함해 각국 정상들과 2일 오후까지 연쇄 정상회담을 했음. 후 주석은 2일 저녁 베이징으로 돌아온 것으로 알려짐.
- 후 주석은 이번 주말 러시아 방문이 예정돼 있음. 중국 외교부는 3일 후 주석이 오는 8~9일 모스크바 붉은광장에서 펼쳐지는 2차대전



승전 65주년 기념행사에 참석할 예정이라고 발표함. 이에 따라 후 주석은 늦어도 7일 오후에는 특별기편으로 모스크바로 향할 것으로 예상됨. 후 주석이 베이징에서 김 위원장을 만난다는 것을 전제로 하면 김 위원장은 이르면 이날 저녁, 늦어도 6일까지는 베이징에 도착해야 한다는 결론이 도출됨.

- 베이징의 외교 소식통은 “김 위원장의 동선이 베일에 가려져 있어 후 주석의 일정을 통해 간접적으로 김 위원장의 동선을 파악할 수 있다는 점에서 후 주석의 일정에도 더욱 관심이 쏠리고 있다”고 말함.

● <김정일訪中> “北, 경제난 타개 급하다”(5/4)

- 일본 언론들은 북한의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중국을 전격 방문한 3일에 이어 4일에도 김 국방위원장의 방중 배경과 일정 등에 큰 관심을 보임. 아사히신문과 요미우리신문, 마이니치신문 등 일본의 주요 언론들은 5일 김 국방위원장의 중국 방문 소식을 1면 톱 기사나 사이드톱 등으로 크게 보도했으며 다양한 분석 기사를 실음.
- 언론들은 대부분 김 국방위원장이 건강상태가 불안함에도 중국 방문을 결행한 것은 한계상황에 이른 경제난을 타개하고 3남인 김정은으로의 후계체제를 원활히 하기 위한 것으로 분석함. 또 중국으로서는 경제지원을 지렛대로 북한을 6자회담으로 끌어들이어 국제사회의 제재를 완화하고 상하이 엑스포에 세계의 이목이 쏠린 지금 김 국방위원장의 방문을 부각시킴으로써 북한에 대한 영향력 과시를 노린 것으로 해석함.
- 아사히신문은 김 국방위원장이 이번 방문에서 6자회담 의장국인 중국이 제안한 예비회담을 지지하는 입장을 전달함으로써 북한의 비핵화를 요구하는 중국의 입장을 배려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함. 북한은 하지만 그 대가로 중국 측으로부터 최대한의 경제지원과 라진·선봉 지역 등에 대한 투자를 끌어내는 한편 유엔의 제재 완화를 위한 중국측의 협조를 기대하고 있다고 신문은 전함.
- 요미우리신문도 건강이 좋지 않은 김 국방위원장이 후계체제의 원활한 이행을 위해 필수적인 경제안정을 위해 중국으로부터 최대한의 경제지원을 바라고 있으며, 중국으로서는 북한의 경제파탄을 막아 체제를 유지시키는 것이 국익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함. 이 신문은 북한이 현재 유엔의 경제 제재로 심각한 외화부족을 겪고 있고 이 때문에 체제 유지를 위한 김 국방위원장의 통치자금에 고갈됐으며 중국을 통해 난국 타개를 노리고 있다고 보도함.
- 마이니치신문은 김 국방위원장이 이번 중국 방문에서 6자회담 복귀 의사를 표명할 것으로 보이지만 한국의 천안함 침몰이 북한의 소행으로 입증될 경우 한국과 미국의 반발로 6자회담의 진전을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전함.



- 이 신문은 김 국방위원장이 중국 방문의 첫 기착지로 외국 기업의 투자가 활발한 항만도시 다롄을 선택한 것은 북한의 심각한 경제난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외자유치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진단함.

● <김정일訪中> “천안함 北제재 노력 저해 우려”(5/4)

- 중국은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방중을 계기로 북한의 붕괴를 초래하지 않는 방향으로 점진적인 경제개혁 조치를 취할 것을 주문하며 대북 지원을 재확인할 가능성이 높다고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들이 관측함. 또 중국의 대응에 따라 천안함 사고 진상 규명 이후 대북 압박을 더욱 강화하겠다는 한·미 외교적 노력이 타격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옴.
- 조시 부시 행정부에서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아시아 담당 선임보좌관을 지낸 마이클 그린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일본 실장은 3일 김 위원장의 방중 의미에 대한 연합뉴스의 논평 요청에 “중국은 이번 방문길에 김 위원장을 설득해 북한의 붕괴를 막고 북한이 경제적으로 생존할 수 있는 부분적인 시장개혁 조치를 취할 수 있게 하는 것을 바라고 있다”고 분석함. 그린 실장은 “중국은 김 위원장이 그러한 노선을 채택하도록 하겠다는 의지가 워낙 단호하기 때문에, 중국이 북한에 원조 제공을 약속하고 천안함 사고에 대해서는 공식 언급을 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이 우려된다”고 말함.
- 그는 “북한이 천안함 사고 연루를 부인하는 한 중국은 내밀하게 북한에 대해 주의를 주는 선에 그칠 것”이라고 내다봄. 그린 실장은 “중국은 현 시점에서 비핵화 자체보다는 북한의 6자회담 복귀에 초점을 맞추고 있고, 대북 압박보다는 유인책이 보다 효과적인 수단이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진단함. 그는 “결론적으로 김 위원장의 방중을 통해 중국이 핵실험, 천안함 사고에 따른 대기를 북한이 치르도록 해야 한다는 한국과 미국의 역량을 저해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점이 우려스럽다”고 말함.
- 마이클 쿨마 아시아 소사이어티 정책담당 국장은 “이번 방문으로 북한을 6자회담으로 복귀시킬 수는 있지만, 천안함 조사가 완료되기 전에 김 위원장의 방문을 받아들임으로써 중국이 북한의 연루 가능성을 묵살하려는 의구심도 있다”고 말함.
- 테드 케일런 카펜터 케이트 연구소 국방·외교정책 담당 부소장은 중국이 김 위원장이 한반도 위기를 촉발할 수 있는 긴장고조행위를 자제할 것을 당부할 수 있다고 내다봄.
- 카펜터 부소장은 “천안함 침몰이 어뢰에 의한 것이라는 증거들이 나오면서 중국 당국은 그러한 사고들이 한반도의 위기를 낳을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며 “북한이 도발적 행위를 중지해야 한다고 촉구할 가능성도 있다”고 말함.



● <김정일訪中> “北, 6자 복귀 선언해도 난관”(5/4)

-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이번 중국방문을 계기로 6자회담 복귀를 선언 하더라도, 천안함 침몰 원인이 북한의 소행으로 드러날 경우 회담 재개까지는 순조롭지 않을 것이라고 보도함.
- WP는 김 위원장의 방중을 전하는 온라인판 기사를 통해 전문가들을 인용, “중국은 북한의 6자회담 복귀 약속이 없이는 북한이 원하는 식량원조나 경제지원을 확대해주지 않을 것”이라며 중국의 6자회담 복귀 유도 가능성을 높게 봄. 그러면서 “중국이 북한을 6자회담에 복귀시킨다고 해도, 북한이 천안함 침몰에 연루된 것으로 판명날 경우 6자회담에 부정적 태도를 취하고 있는 한국 때문에 진전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함.
- WP는 “김 위원장은 과거 북한이 어려운 상황에 빠질 때마다 중국의 지원에 기댔다”며 지난해 화폐개혁 실패에 따른 경제악화, 극심한 식량난,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등으로 인한 어려움을 벗어나기 위해 김 위원장의 방중이 이뤄졌다고 분석함.
- WP는 김 위원장의 후계로 거론되고 있는 3남 김정은의 동행 여부도 주목대상이라고 지적하며 “김정은의 동행은 그를 미래 중국 지도자들에 소개시키는 기회가 될 것이고 승계 준비를 공식화하는 의미가 있다”고 진단함.
- WP는 특히 김 위원장이 다롄(大連)에 숙박한 것에 주목하며 “중국은 해외투자를 유치해 발전시킨 항구도시 다롄의 성공사례를 강조해 왔다”며 최근 북한 라진항의 ‘동해 출항권’과 10년 개발권을 따낸 중국의 라진 진출 드라이브 시도로 해석함.
- 뉴욕타임스(NYT)도 온라인판 보도를 통해 김 위원장의 방중배경으로 춘궁기 식량난 해결 목적과 더불어 “천안함 사고가 북한 소행으로 드러날 경우 대북제재를 위해 중국의 지원을 얻으려는 한국 정부의 시도에 대응하려는 것”이라고 분석함.
- NYT는 특히 이명박 대통령의 사흘 전 중국 방문에 이은 김 위원장의 방문을 주목하며 “한반도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을 반영하는 것”이라고 전문가를 인용해 전함. NYT는 중국이 김 위원장의 방중을 수용한 것을 두고 북한의 ‘명줄’을 쥐고 있는 중국에 한반도의 최우선적 이해는 북한체제의 붕괴를 막는 것”이라는 점을 다시 한 번 보여주는 것이라고 해석함. 그러나 천안함 사고 조사 와중에서 김 위원장의 방문을 받아들인 중국의 태도는 북한의 정치 개혁 가능성과 북한의 비핵화를 가로막을 수 있다는 국제사회의 우려도 낳고 있다고 NYT는 분석함.
- 크리스천 사이언스 모니터는 “중국은 오랜 혈맹인 북한의 붕괴를 원치 않지만, 북한은 핵실험을 하지 말라는 중국의 경고를 두 차례 무시한 바 있다”며 “중국이 김정일 체제를 계속 도울 경우 이번에 대가를 원할 것이며 북한의 6자회담 복귀 선언 여부를 주목해야 할 것”이라고 보도함.



● <김정일訪中> 김양건 당 통전부장 수행(5/3)

-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중국 방문에 ‘중국통’인 김양건 노동당 통일전선부장과 최태복 노동당 비서가 동행한 것으로 확인됐음. 일본 NHK가 3일 공개한 김 위원장의 다롄(大連)시 푸리화(富麗華)호텔 도착 영상에는 김 부장과 최 당비서의 모습이 등장함.
- 국방위원회 외교 참사를 겸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김 부장은 올해 외자유치를 목적으로 설립된 조선대풍국제투자그룹의 초대 이사장으로 임명돼 중국의 대북 투자유치를 이끌고 있는 만큼 이번 방중에서 북중 간 경제협력문제를 집중 보좌할 것으로 보임.
- 북한은 올 들어 라선시를 ‘특별시’로 제정하고 라진항을 중국에 개방하는 한편 대풍그룹과 국가개발은행을 설립하는 등 국방위원회를 중심으로 외자유치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음.
- 김 부장은 당 국제부에 오래 근무하며 중국 공산당과 외교의 일선에 섰던 중국통으로 1994년 김일성 주석 사망 이후 김 위원장의 5차례 방중 가운데 2000년과 2001년 당시 당 국제부장의 자격으로 수행했지만 2004년과 2006년 방중 때는 수행하지 않았음.
- 특히 김 부장은 통일전선부장으로 북한의 대남정책을 총괄하고 있는 만큼 이번 방중기간 현 남북관계 상황을 중국 측에 설명하는 역할도 맡을 것으로 보임. 아울러 과거 김 위원장의 방중을 한 번도 수행한 적이 없는 최 비서가 이번에 처음으로 김 위원장을 따라간 것도 눈길을 끌고 있음. 최 비서는 현재 노동당 내에서 국제 및 과학분야를 전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북한이 최근 ‘최첨단’을 외치며 과학기술 발전에 안간힘을 쓰고 있는 상황에서 국제사회의 고립과 제재 속에서 과학분야의 발전을 위해 중국과의 협력에 주력할 것을 예상케 함.

● “北은 식량, 中은 6자회담 복귀” <英언론>(5/3)

-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중국 방문은 북한 측의 경제적 지원 요청과 중국 측의 6자회담 복귀 요구가 맞아떨어져 이뤄진 것이라고 영국 언론들이 3일 풀이했음.
- BBC는 이날 “전문가들은 김 위원장이 지난해 물가상승을 촉발한 재앙과 같은 화폐개혁 이후 중국으로부터 경제적 도움을 구하기 위해 방중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보도했음.
- BBC는 중국 입장에서는 1년간 중단된 6자회담 복귀를 촉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면 그러나 한국은 북한이 천안함을 침몰시켰다는 증거가 나타난다면 6자회담이 재개되지 않을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고 전했음.
- 일간 더 타임스도 인터넷판에서 “2006년 북한이 핵실험을 한 이후로 김 위원장과의 관계가 소원했던 중국 정부가 이번에 6자회담을 재개시키기 위한 압박을 가할 것이 확실하다”고 말했음. 더 타임스는 “이번 방문은 6자회담을 재개시키려는 중국의 요구를 수용했다는 것을



의미할 수도 있다”면서 “또는 중국이 직접 설득하려고 그의 방문을 승인했을지 모른다”고 지적했음. 이어 “경제난에 처해있는 김 위원장은 이번 회담을 식량을 더 많이 지원받기 위한 협상기회로 활용하기를 열망하고 있을지 모른다”고 강조했다.

- 경제 일간 파이낸셜 타임스(FT)도 “김 위원장의 방중은 빈사 상태인 북한 경제를 되살리겠다는 사명을 띠고 있다는 추측이 일고 있다”며 “중국은 6자회담 복귀를 설득할 것”이라고 보도했음.

● <김정일訪中> ‘러’ 전문가 “원조요청 목적”(5/3)

- 러시아 과학아카데미 산하 경제연구소 게오르기 톨레라야 박사는 3일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중국 방문의 가장 큰 목적은 경제적 지원 요청일 것”이라고 내다봤음.
- 러시아 내 한반도 전문가인 톨레라야 박사는 이날 연합뉴스 전화 인터뷰에서 김 위원장의 방문 목적과 관련해 “중국과 북한의 전통적 외교 관계를 다시 확인하려는 것도 있지만, 경제적 이유가 크다”면서 이같이 말했음. 그는 “식량과 에너지 문제를 포함한 경제적 원조를 요청할 것으로 보인다”고 강조했다.
- 특히 그는 천안함 침몰 사태와 관련한 논의가 있을 것으로 보느냐는 질문에 “아직 진실이 밝혀진 것은 아니지만, 만약 이 문제에 대해 중국 당국과 얘기가 오간다면 김 위원장은 북한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말할 공산이 크다”고 말했음.
- 또 그는 교착 상태에 빠진 6자회담 재개에 대해서는 “중국은 북한을 6자회담으로 되돌리기 쉽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그럼에도 복귀 설득 노력을 포기하지는 않을 것이고 경제적 지원 대가로 북한의 6자회담 복귀를 압박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음.
- 이어 “러시아를 포함한 6자회담 당사국들은 북한의 6자회담 복귀를 원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북한은 여전히 미국과의 직접 대화를 원하고 있고 당사국들이 평화협정과 관련해 미국을 설득시켜 주기를 바라는 것 같다”고 덧붙였음.

● <김정일訪中> 전문가 진단..장렌구이 교수(5/3)

-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이 방중 기간 6자회담 재개에 긍정적 신호를 보내지 않으면 북·중간 외교관계가 어려워질 것이란 전문가 분석이 나왔음.
- 중국의 북한 문제 전문가인 장렌구이 공산당 중앙당교 교수는 3일 연합뉴스와 인터뷰에서 “김 위원장의 방중 기간 6자회담 재개에 긍정적 답변을 할 가능성이 크지만 그렇지 않으면 양국 간 외교관계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고 말했음.
- 대표적인 대북 강경론자인 장렌구이 교수의 이 같은 발언은 북한이 6자회담 복귀를 선언할 가능성을 크게 보면서도 6자회담 의장국으로서 회담의 조속한 재개를 열망하는 중국을 실망시켜서는 안 된다



는 경고의 메시지가 담겨 있는 것으로 풀이됨.

- 장 교수는 “후진타오(胡錦濤) 국가주석을 비롯한 중국 지도부와 김 위원장이 양국 간 경제협력과 중국의 대북 지원문제, 북핵 문제, 6자 회담 재개문제, 남북 간 긴장이 고조되는 상황에서의 동북아 정세 문제 등 당면한 현안에 대해 깊이 있게 논의할 것”이라고 전망했음. 그러면서 후 주석이 수차례 김 위원장을 초청했고 과거에도 김 위원장이 방중했던 만큼 이번 방중은 자연스러운 것이란 입장을 전했다.
- 그러나 그는 김 위원장이 다롄을 방문한 데 대해 “북한은 중국을 모델로 개혁개방의 길로 들어서겠다는 의지가 없다”면서 큰 의미를 부여하지는 않았음.
- 차기 후계자로 내정된 3남 김정은의 동행 여부에 대해 장 교수는 “현재로서는 확인할 수 없지만 후계자 문제는 북한의 내정문제로, 중국과 상의할 일은 아니다”라고 말해 가능성을 작게 보고 있음을 시사했음.

● <김정일訪中> 전문가 진단..류장용 교수 (5/3)

-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이 3일 전격 방중한 것이 향후 북핵 6자회담 재개에 도움이 될 것이란 중국 전문가의 분석이 나왔음.
- 중국의 한반도 전문가인 류장용(劉江永) 칭화(淸華)대 국제문제연구소 교수는 3일 연합뉴스와 인터뷰에서 “김 위원장의 방중이 공전을 거듭하고 있는 6자회담 재개와 한반도 비핵화 진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음.
- 류 교수는 “미국이 6자회담 재개에 대한 의지를 갖고 있고 의장국인 중국도 재개를 위해 건설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음.
- 그의 이 같은 언급은 천안함 사태가 향후 6자회담 재개의 걸림돌이 되지 않기를 바라는 중국 정부의 입장과는 궤를 같이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됨. 그러나 류 교수는 남북간에 천안함 사태의 원인과 금강산 관광 문제, 북한의 자산동결 조치 등을 둘러싸고 긴장이 고조되고 있고 미국도 이란 핵문제 등 국내외적으로 난관이 많다는 점을 회담 재개의 변수로 꼽았음. 그는 김 위원장이 방중한 것은 북·중 관계를 놓고 볼 때 자연스러운 일이란 점도 강조했다. 류 교수는 작년 원자바오 총리가 방북해 김 위원장에게 편리한 시간에 중국을 방문해 달라고 재차 초청했기 때문에 방중은 정상적인 일이라고 말했음.
- 그는 북·중 양국이 김 위원장의 방중 기간 경제협력을 포함한 양국 관계 발전 방안과 한반도 정세 등 국내외 문제에 대해 심도있는 논의를 할 것이라고 전망했음.
- 류 교수는 원 총리의 방북 당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공동인식에 도달했으며 이번에 경제협력 방안을 포함한 추가 논의를 진행할 것으로 내다봤음. 그런 점에서 그는 김 위원장이 첫 방문지로 다롄(大連)을 선택한 것에 큰 의미를 부여했음.
- 류 교수는 “다롄은 동북3성에서 개혁개방을 가장 먼저 한 연해도시



이자 두만강 개발과도 연관이 있는 국제화된 도시”라고 평가하고 “김 위원장이 다롄을 시찰하는 것은 북한이 라선시 등 경제특구를 건설하는 데 벤치마킹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 그러면서 “북한은 국방위원회가 최고권력기관으로서 선군정치를 정책 기조로 삼고 있다”면서 “1월 공동시설에 올해 북한이 경제와 민생 개선에 중점을 두겠다고 밝힌 점으로 미뤄볼 때 김 위원장의 방중은 경제 건설과 대외교류 확대에도 방점이 찍혀 있다”고 말했다.
- 차기 후계자로 내정된 3남 김정은의 동행 여부에 대해 류 교수는 “현재로서는 확인할 수는 없지만 중국이 초청하고 북한이 스스로 결정했다면 모를까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인다”고 말했다.

● <김정일訪中> 전문가 진단..진징이 교수(5/3)

- 차기 후계자로 내정된 3남 김정은의 동행 여부에 대해 류 교수는 “현재로서는 확인할 수는 없지만 중국이 초청하고 북한이 스스로 결정했다면 모를까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인다”고 말했다. 중국의 북한 문제 전문가인 진징이(金景一) 베이징대 조선문화연구소 소장은 3일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전격적인 중국 방문은 북핵 6자회담 재개문제와 북-중 경제협력을 강화하기 위해서인 것으로 분석했음.
- 진징이 교수는 김정일 위원장이 천안함 사태로 한반도에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는 민감한 시기에 방중, 주목되고 있다면서 김 위원장의 방중 목적은 중국 지도부와 남북관계를 논의하는 것보다는 북-중 현안에 초점이 맞춰져 있을 것으로 진단했음.
- 진 교수는 남북관계의 경색으로 조만간 이뤄질 것으로 기대됐던 북핵 6자회담 재개 전망이 불투명해졌지만 북한과 중국은 최근 들어 6자회담 재개에 전반적으로 이해를 같이하고 있기 때문에 김 위원장이 이번 방중에서 후진타오(胡錦濤) 중국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갖고 6자회담 재개를 위한 중대 발표를 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내다봤음.
- 중국은 6자회담이 북핵문제뿐만 아니라 한반도를 포함한 동북아 문제를 대화로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하고 가장 합리적인 회담 틀이기 때문에 이를 조만간 재개해야 한다는 입장이고 북한도 국제사회에서 고립을 벗어나고 남북관계 긴장해소를 위해선 회담 재개가 최선이라고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관측된다는 것임.
- 유엔 제재에 이은 남북관계 경색의 영향으로 북한의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북-중 경협이 더욱 밀접해지고 있는 것도 김정일 위원장의 방중을 재촉한 이유의 하나일 것이라고 진 교수는 말했다. 김 위원장은 따라서 이번 방중기간 중국 측과 협상을 통해 북-중 경협에 대한 가시적 성과를 낼 수도 있다고 진 교수는 점쳤다. 그는 첫 목적지로 다롄(大連)을 택한 것을 북-중 경협 강화를 위한 발판을 만들려는 시도로 분석했음.
- 김 위원장은 중국의 동북공정 중 핵심 물류기지 중심인 다롄의 발전



전략과 항구기능을 직접 시찰, 북한의 라진-선봉의 모델로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한편 중국의 동북지방 개발과 북한의 경제개발을 연계하는 아이디어를 모색하려는 것으로 관측된다는 것임.

- 진 교수는 김정일 위원장이 이번 방중에 3남인 김정은을 대동했을 것이냐는 질문에 이는 민감한 사항으로 함부로 예단하기 힘들지만 쉽지는 않을 것 같다고 말했음.

● 中, 北에 변경무역 위안화결제 허용(5/3)

- 중국이 북한을 포함해 위안화 무역결제 지역을 대폭 확대했음. 중국은 북한이 지난해 5월 제2차 핵실험을 강행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대북 제재를 결정하자 그 이전에 허용해왔던 북한과의 변경무역 위안화 결제를 전격 중단한 바 있음.
- 이번 결정으로 북한은 랴오닝(遼寧), 지린(吉林), 헤이룽장(黑龍江) 등 이른바 동북3성과의 변경 무역에서 부족한 달러 대신 상대적으로 '풍부한' 위안화를 사용할 수 있게 돼 외화유동성 문제가 일부 해소되고 양국 간 무역거래가 이전보다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됨.
- 북한은 안보리의 대북제재로 국제사회로부터 고립이 심화돼 국제결제수단인 달러 획득이 어려웠던 데다 지난해 말 전격적으로 단행한 화폐개혁으로 경제상황이 악화하면서 중국 측에 변경무역의 위안화 결제를 강하게 요청해왔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음.
- 일각에서는 김 위원장이 중국을 방문한 이날 북한을 포함한 인근 국가로 위안화 무역결제를 확대한다고 발표한 게 북한에 대한 일종의 '선물' 아니냐는 지적도 나옴.
- 반관영 통신사인 중국신문사는 이날 중국 재정부와 국가세무총국의 발표를 인용해 동북3성을 포함해 내이멍구(內蒙古), 광시(廣西), 신장(新疆), 시짱(西藏.티베트), 윈난(雲南) 등의 수출기업이 85개의 지정된 장소에서 인근 국가에 제품을 수출하고 위안화로 결제하면 위안화 결제금액에 대해 면세해주시기로 했다고 보도했음.
- 이번 규정은 3월1일부터 소급 적용됨. 위안화 무역결제 면세 혜택이 주어지는 수출 대상국은 북한 외에도 러시아, 베트남, 미얀마, 라오스,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 파키스탄, 인도, 몽골, 네팔, 아프가니스탄, 부탄 등임.
- 중국 재정부와 세무총국은 2003년 12월 '위안화 변경무역 소액결제 면세 통지'를 처음 내놓은 후 2004년 1월 윈난성에서 처음 시행에 들어갔음.

라. 기타

● “유엔 對北 식량 지원 6월말 소진”<WFP>(5/3)

- 북한의 핵실험 이후 국제사회의 지원이 감소함에 따라 다음 달 말이면 북한에 대한 유엔의 식량 지원이 소진될 것이라고 세계식량계획



(WFP)이 3일 밝혔음. 베이징 주재 WFP 대변인은 이날 블룸버그 통신과의 전화 인터뷰에서 “6월까지(북한에 대한) 지원이 가능하다”면서 그러나 “지원이 계속되기 위해서는 기증자가 시급히 필요하다”고 밝혔음.

- 레나 사벨리 대변인은 WFP가 현재 북한에 대한 지원을 계속하기 위해 지원 공여국들과 협의 중이라고 덧붙였다. 북한은 지난 1990년대 중반 홍수로 인한 기근 사태 이후 식량 조달을 상당 부분 외부 지원에 의존해왔음. 외부로부터의 식량 지원 감축은 2009년 핵실험 실시에 따른 유엔 안보리의 제재와 지난해 실패로 끝난 화폐개혁 등과 함께 김정일 정권에 대한 추가 압력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임.
- 한국농촌경제연구소에 따르면 북한은 올해 최소한 100만 톤의 식량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나 WFP는 기금 부족으로 당초 예상했던 620만 명보다 적은 150만 명의 북한 주민들에게만 지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특히 지난해에는 북한에 대한 식량 지원이 북한의 특권층에 배분될 것을 우려한 국제사회의 지원 기피로 북한의 식량난이 악화되고 있음.

● 이스라엘 “北, 이란 무기면세점 노릇” 비난(5/3)

- 시몬 페레스 이스라엘 대통령은 2일 북한이 이란뿐 아니라 레바논과 시리아의 이슬람 무장세력을 위한 ‘무기 면세점’ 노릇을 하고 있다고 비난했음.
- 페레스 대통령은 이날 이스라엘을 방문 중인 레네 에스페르센 덴마크 외무장관과의 회담에 앞서 기자들에게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과 핵무기의 면세점이 되고 있다”며 이스라엘은 무기 밀거래의 흐름을 ‘부릅뜬 눈’으로 지켜보고 있다고 강조했다.
- 그는 또 “북한의 무기류는 이란으로 직접 흘러들어 간다”면서 “이란은 (이들 무기류로) 레바논의 무장정파 헤즈볼라와 시리아의 이슬람 단체들을 포함한 세계 테러 조직을 무장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페레스 대통령은 북한산 무기가 이란을 거쳐 레바논과 시리아의 무장세력에 유입되고 있다는 증거를 제시하지는 않았다고 AP 통신은 전했다.
- 이스라엘은 국제사회의 제재 경고에도 불구하고 핵 프로그램을 강행하고 있는 이란을 자국의 최대 위협 세력으로 간주하고 있음. 북한은 이란과 시리아, 미얀마 등에 미사일과 그 부품 등을 수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 앞서, 페레스 대통령은 지난달 중순 시리아가 레바논 남부에 근거지를 둔 시아파 무장정파 헤즈볼라에 1t 이상의 탄두를 탑재할 수 있는 스커드 미사일을 몰래 제공했다고 주장해 파문을 일으켰음. 이에 시리아는 외무부 성명을 통해 페레스 대통령의 주장을 부인한 뒤 이스라엘이 지역 내 긴장을 고조시키고 새로운 군사적 행동에 나설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할 목적에서 스커드 미사일 제공설을 퍼뜨리고



있다고 반박했음.

- 사드 하리리 레바논 총리도 이스라엘이 제기한 헤즈볼라의 스커드 미사일 보유설이 2003년 미국이 이라크 침공의 명분으로 삼았던 사담 후세인 체제의 대량파괴무기(WMD) 개발설에 비교될 수 있다고 주장했음. 이스라엘은 2007년 9월 북한의 지원으로 건설된 것으로 추정되는 시리아 내 핵의혹 시설을 공습해 파괴한 바 있음.

2. 주변국 관련

가. 한·미 관계

● 한미, 주한미군 현수준 유지 문서로 보장키로(5/9)

- 한국과 미국은 주한미군을 감축하지 않고 현 수준에서 유지한다는 확고한 의지를 문서로 보장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9일 “양국 정부의 설명에도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에 따른 주한미군 병력감축 가능성이 계속 제기되고 있다”면서 “이런 가능성을 불식하고 공고한 한미동맹을 과시하기 위해 주한미군을 현 수준에서 유지한다는 것을 국방외교 문서에 담을 계획”이라고 밝혔음.
- 이에 한미는 올해 제정되는 ‘국방지침’(Defense Guideline)에 주한미군 병력을 현 수준인 2만 8천 500명으로 유지한다는 내용을 명시할 것이라고 이 관계자는 설명했다.
- 양국의 미래 국방분야 협력 방향을 총괄적으로 제시할 문서인 국방지침은 6~7월 서울에서 개최될 ‘2+2회담’(양국 외교+국방장관) 또는 10월 워싱턴에서 개최될 제42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에서 채택될 것으로 알려졌다.
- 양국은 지난 6일 개최된 제25차 한미안보정책구상(SPI) 회의에서 국방지침에 담을 내용을 사전 조율했으며, 2+2회담 일정도 협의했으나 날짜를 정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음.
- 정부 소식통은 이와 관련 “국방지침은 그야말로 미래 국방분야 협력 방향을 담은 총론적인 지침서가 될 것”이라며 “국방지침에 담을 내용을 사전에 조율하고 있으며 주한미군 병력의 현 수준 유지는 최우선으로 반영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 미국은 전략적 유연성 방침에 따라 오는 2018~2019년께 주한미군을 해외 분쟁지역으로 본격 차출할 계획이며, 이에 따른 병력 감축 가능성이 계속 거론되고 있음.

● 롤리스 “천안함, 전작권 전환 연기에 오용 안 돼”(5/7)

- 리처드 롤리스 전 미국 국방부 아시아·태평양 담당 부차관은 6일 천안함 사건이 오는 2012년으로 예정된 전시작전권 전환 결정을 뒤집



는 데 잘못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고 밝혔음.

- 노무현 정부 당시 이뤄진 전작권 전환 결정시 미국 측 대표로 전작권 전환 협상을 주도했던 그는 이날 미 전략국제문제연구소(SCIS)에서 열린 북한의 불안정사태 대응 방안에 대한 토론회에서 천안함 사건이 전작권 전환에 미칠 영향에 대한 질문을 받고 이같이 말했음. 그는 “한국의 강화된 능력을 감안할 때 천안함 사건이 수년 전 이뤄졌던 정책 결정을 뒤집는 정치적 결정을 하려는데 어떤 식으로든 오용(misuse)되거나 잘못 적용(misapply)되지 않기를 확실히 희망하고 있다”고 밝혔음.
- 그는 “만일 전작권 문제가 재고된다면 이는 이 정부의 정치적 결정이 될 것”이라면서 “이는 군사적 (측면의) 결정이 아니다”고 말했음. 그는 “한국군이 탁월하게 임무를 수행하고 전작권을 받을 준비가 돼 있었기 때문에 그 같은 (전작권 전환) 합의에 이르렀다”면서 “그렇기 때문에 연기 결정이 있다면 이는 정치적 동기에서 이뤄진 결정이 될 것이며, 그것이 한국에 최고의 이익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밝혔음.

● “한·미·중, 北불안정 軍개입 상황 논의해야”(5/7)

- 한국과 미국, 중국 등 3국은 북한의 불안정 사태시 외국군의 개입이 필요한 상황(circumstance)을 논의해야 하며, 어느 국가든 북한에 군대를 파견하기 전에 국제적 조율이 우선돼야 한다는 점에 합의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음.
- 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보니 글레이저 선임연구원과 스콧 스나이더 아시아재단 한미정책연구센터 소장은 6일 ‘한반도 변화에 대한 대응: 한·미·중 협력의 장애물’이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통해 이 같은 방안을 3국 정부에 권고했음.
- 이들은 “최소한 이들 국가는 (북한의 급변사태시) 북한에 군대를 보내기 전 그 같은 사실과 목표를 다른 두 국가에 알린다는 약속을 해야 한다”면서 “미국과 중국은 또 북한에 군대를 파견할 경우 장기적 주둔을 할 의사가 없으며 적절한 시간표에 따라 군대를 철수할 것이라는 점을 밝혀야 한다”고 말했음.
- 보고서는 구체적으로 미국과 한국 정부는 중국에 ▲한미 양국군을 휴전선 북쪽으로 파병이 필요한 상황 ▲북한에 진입할 양국군의 임무와 기간 등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대신 중국 정부는 ▲난민캠프 설치 여부를 포함한 북한 난민들에 대한 대처 방안 ▲중국군이 북한에 진입할 필요가 있다고 느낄 상황 ▲북한에 대한 인도적 작전 및 대량살상무기(WMD) 수색·파괴에 한미 양국과 조율할 것인지 여부 등을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음.
- 보고서는 3국간의 이 같은 협력을 위해 한·미·중 3국의 정상들이 북한의 불안정 사태시 가능한 대응들에 관한 대화와 협력이 필요하다는 데 합의해야 하며 이후 군과 민간 인사를 포함한 태스크포스를 설치



해야 한다고 제안했음.

- 보고서는 북한의 불안정 사태에 대한 대응 방안 논의는 북한의 불안정사태가 일어날 수 있는 일이며, 이는 역내의 모든 당사자들이 바라는 일이 아니라는 점과 역내 안정과 비핵화가 공동의 이해라는 점이 전제가 되어야 한다고 지적했음. 이 밖에 보고서는 3국간의 북한 불안정사태 대응방안 논의 노력에 대한 비밀을 지켜야 하며, 일본에는 3국의 논의 결과를 전달해 줘야 한다고 밝혔음.

● 美 “대화·외교통한 문제해결 입장 불변”(5/7)

- 스티븐 보즈워스 미국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는 6일 “미국 정부는 당분간 천안함 사고와 관련한 한국 정부의 조사를 지원하는데 집중하려 한다”고 밝혔음.
- 보즈워스 특별대표는 이날 워싱턴D.C.에서 하와이에 본부를 둔 싱크 탱크 ‘이스트웨스트 센터’ 주최로 열린 세미나에 참석, “중국이 북한 측(김정일 위원장)에 무슨 얘기를 했는지를 베이징으로부터 기다리고 있고, 천안함 조사결과를 기다리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음.
- 그러나 보즈워스 대표는 북한이 6자회담 복귀를 전격 선언하면 미국은 어떤 대응에 나설 것이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가정적인 상황에는 언급하지 않겠다”고 즉답을 피했음.
- 이어 보즈워스 대표는 장기적 관점에서 앞으로의 상황을 예측하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말하면서 “단 분명한 것은 우리는 이런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외교와 대화를 해나갈 것이라는 점에 변화가 없다는 사실”이라고 강조했다.
- 이는 천안함 사건에 북한이 연루된 것으로 드러난다고 해도 군사적 대응은 일단 배제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해석됨. 또 그는 북한도 미국의 이런 입장에 부응해 현재 갈등을 빚고 있는 핵문제에서 의미있는 진전을 이뤄내기 위한 국제적 의무 준수 등의 노력을 보여 주길 기대한다고 촉구했음.
- 그는 사건임을 전제, “북한 핵문제는 장기적으로 다자대화를 통해 해결해 나갈 수 있다는 점에 조심스럽지만 낙관적인 견해를 갖고 있다”면서도 “이 문제는 매우 복잡한 사안인 만큼 우리의 기대치를 적절하게 통제할 필요는 있다”고 밝혔음.
- 보즈워스 대표는 자신이 10년여 전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 사무총장과 주한 미 대사를 지냈을 당시와 비교할 때 이제 이 문제는 북·미 양자 간에 해결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 다자의 협의를 필요로 하게 됐으며, 북한이 2차례의 핵실험을 통해 핵무기를 소유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2가지 큰 변화를 겪었다고 밝혔음.
- 그는 북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 미국의 중심적 역할을 회피할 의도는 없다고 강조하고, 미국은 역내 우방과 파트너들의 이해관계에 부응하는 방향으로 일을 진행시켜 나가기 위해 이들과 긴밀한 협력을 계속 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 전미외교정책협의회 대표단 9~11일 방한(5/5)

- 올해 초부터 김계관 북한 외무성 부상의 방미를 추진해온 전미외교정책협의회(NCAFP) 대표단이 9일부터 2박3일간 일정으로 한국을 방문한다고 외교소식통이 5일 전했다.
- 조지 슈워브 회장을 비롯한 대표단은 10일 아산정책연구원이 주최하는 ‘한·중·일 학술회의’에 참가한 뒤 11일 출국할 예정이다. 대표단은 또 11일 김성환 청와대 외교안보수석과 신각수 외교통상부 1차관을 각각 면담을 갖고 6자회담 재개를 비롯한 북핵 해결방안과 동북아 정세 현안에 대해 폭넓은 협의를 가질 것으로 알려졌다.
- 대표단에는 수석부회장인 도널드 자고리아 헨터대 교수, 전 주중 미국대사를 역임한 제이 스태플레톤 로이 키신저 연구소장, 니컬러스 플랫 아시아소사이어티 명예회장, 랄프 코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퍼시픽포럼 소장 등이 포함됐다.
- NCAFP는 지난 3월 북핵 6자회담 북측 수석대표인 김계관 부상을 초청하기 위해 비자승인 권한을 가진 미 국무부측과 협의를 벌여왔으나 결국 무산된 것으로 알려졌다.

나. 한·중 관계

● 中 “천안함과 김정일 방중은 별개”(5/8)

- 중국 외교부가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방중과 천안함 침몰사건은 별개로 봐야 한다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혔다. 신화통신이 8일 보도했다. 장위(姜瑜)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7일 ‘천안함 조사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김 위원장의 방중을 허락한 것은 북한에 대한 편파적 지지 아니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3~7일 김 위원장의 방중은 오래전부터 준비된 비공식방문으로, 그 방문과 천안함 사건은 서로 관련이 없다”고 밝혔다.
- 장 대변인은 이어 “한국 외교부로부터 1천200t급의 천안함이 북한과의 접경 부근에서 사유가 밝혀지지 않은 폭발로 두 동강이 나 104명 승조원들과 함께 침몰했다는 설명을 들었다”면서 “불행한 비상사태로 중국도 한국 측에 위로와 동감을 표시했다”고 전했다.
- 그는 그러면서 “천안함 사건을 다룰 때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을 최우선의 관심사로 다뤄야 한다”며 “완전히 입증할 수 있는 사실이 발견되기 전까지 (남북) 양측은 차분히 자제하면서 말과 행동에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 장 대변인은 또 김 위원장의 방중과 관련해 “북·중 양국 간에는 서로 고위급 지도자를 상호 방문토록 하는 전통이 있으며 (귀국하는 시점에 맞춰 보도하는) 관례에 따라 7일 오전 신화통신을 통해 김 위원장의 방중 사실을 보도했다”며 “다른 국가가 자국 지도자의 방중사실을 나중에 보도하라고 요구한다면 그에 응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 그는 “김 위원장이 중국 지도자들을 만났을 때 한반도 비핵화 의지에는 변함이 없으며 북한은 유관 당사국과 함께 6자회담 재개를 위한 유리한 조건을 조성하기를 희망한다는 의지를 밝혔다”고 전했다. 장 대변인은 아울러 “중국은 한반도 평화와 안정이 모든 동북아 국가들의 이익에 부합한다는 입장을 변함없이 지켜왔다”며 “모든 유관 당사국들은 6자회담을 진전시키기 위한 노력으로 유연성과 성실성을 보여줘야 한다”고 주문했음.
- 그는 “한·중 간에도 고위급 인사의 상호방문은 양국 관계를 발전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지적하고, “원자바오(溫家寶) 총리가 이달 말로 예정된 한·중·일 정상회담에 참석하는 방안이 적극 검토되고 있다”고 밝혔음.

● 靑 “中, 류대사에 김정일 방중 브리핑”(5/7)

- 중국 정부가 7일 오전 류우익 주중 대사 등을 불러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최근 방중 결과와 배경 등을 공식 브리핑한 것으로 확인됐음. 김성환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중국 정부가 현지시간 오늘 오전 8시에 김 위원장의 방중 내용을 우리 정부에 통보했다”라면서 “중국 측은 이날 통보에 대해 ‘한중 관계를 중시하기 때문에 가장 먼저 알리는 것’이라고 설명했다”라고 말했음.
- 김 수석은 또 “중국 측은 김 위원장의 방중 배경과 경위, 주요 논의 사항에 대해 성의있게 설명했다”라면서 “아울러 지금까지 우리 정부와 긴밀히 협력해 왔고, 앞으로도 우리나라와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전해왔다”라고 덧붙였다.
- 그는 또 이명박 대통령이 이날 한나라당 지도부와의 조찬에서 ‘중국 정부가 한국 정상보다 북한 정상을 먼저 만나는 것이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 김 위원장의 방중을 며칠 미뤘다’라는 취지로 언급한 데 대해 “우리 입장을 먼저 들어보고 김 위원장을 맞아들인 것이라고 보면 된다”라고 설명했다.
- 김 수석은 이어 “그래서 한중 정상회담에서 중국 측이 먼저 천안함 사건에 대한 위로를 표명했고, 천안함 관련 위로를 공개석상에서 표현했다는 것은 우리 측에서 천안함 얘기하는 것을 다 들어보겠다는 것이었다”라면서 “우리는 입장을 충분히 전달했고, (후진타오 중국 주석은) 충분한 지식을 갖고 김 위원장을 만난 것”이라고 밝혔음.
-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중국 정부로부터 김 위원장의 방중 브리핑을 받은 관계자가 누구인지에 대해 “주중 대사도 갔고 공사도 갔다”라고 확인했지만 브리핑을 해준 중국 정부 관계자가 누구인지에 대해서는 함구했음.
- 이와 함께 그는 북한이 조만간 6자회담에 복귀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북중 정상회담) 발표문을 보라”면서 “발표문에 ‘양측은 6자 회담 프로세스를 추진하기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하였다’라는 내용이 있는데, 이 안에서 생각하면 된다”라고 말했음.



- 이와 관련, 한 핵심 참모는 “북한이 6자회담에 복귀할 것이라는 표현이 명시적으로 발표문에 포함되지 않은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그는 또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이 후계자 김정은을 방중에 동행했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언론에서 다들 맞게 썼다. 틀리게 쓴 곳이 없더라”라고만 답했다.
- 국내 언론 대부분은 김정은이 김 위원장의 방중에 동행하지 않았다고 보도한 바 있음. 정부 관계자는 “중국 정부가 아침 출근시간에 김 위원장의 방중 내용을 우리 측에 가장 먼저 통보한 것은 상당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면서 “일각의 우려와는 달리 양국 간 협의가 충분히 이뤄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 中 “김정일 방중허용은 내정문제”(5/6)

- 중국 외교부는 6일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방중과 관련, “어떤 국가 지도자의 방문을 받아들이는 것은 중국의 내부 문제며 주권의 범위에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 장위(姜瑜)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한국 정부가 천안함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김정일 위원장의 방중을 허용한 중국에 항의했다는 보도에 대한 입장을 요구받고 이같이 밝혔다. 장 대변인은 그러면서 “두 가지 문제(김 위원장의 방문과 천안함 사건을 지칭함)는 별개의 문제”라고 평가하고 “내가 듣기로는 아직까지 한국 측이 공식 항의를 한 사실은 없다”고 말했다.
- 현인택 통일부 장관도 4일 장신썬 주한 중국대사와 면담한 자리에서 한반도 문제와 관련한 중국의 “책임 있는 역할”을 기대한다고 밝혀 김 위원장의 중국 방문에 대해 우려의 뜻을 표한 것이라 관측을 낳았다.

● 中언론 “한국, 中의 김정일 환대에 불만”(5/6)

- 중국의 일부 관영언론들은 6일 한국이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방중과 관련, 중국에 불만을 표시했다고 보도했다. 중국 공산당 기관지인 인민일보(人民日報)가 발행하는 국제문제 전문지인 환구시보(環球時報)는 이날 ‘한국, 중국의 김정일 환대에 불만’이라는 제목아래 이 같은 내용의 기사를 1면 톱으로 다뤘다.
- 환구시보의 영문자매지 글로벌타임스도 이날 1면 톱기사에서 한국은 중국이 천안함 사건과 관련, 북한에 압력을 행사해 주기를 바라고 있다고 말하고 한국 언론들은 중국의 김 위원장 초청을 비난했다고 보도했다. 환구시보는 김 위원장이 단둥(丹東)에서 다롄(大連)을 거쳐 베이징에 진입하면서 한국인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고 전하고 특히 한국정부가 장신썬 주한 중국대사를 불러 그의 초청 사실을 사전 통보해주지 않는데 대해 유감을 표시했다고 말했다. 한국 정부는 중국 측에 이러한 유감 표시와 함께 북·중 간에 이뤄진 대화 내용을 한국에 통보해 줄 것을 희망했다고 신문은 전했다.



- 신문은 이어 한국의 언론매체들은 천안함 사건으로 남북관계가 긴장되고 있는 민감한 시기에 중국이 김 위원장을 초청한데 대해 배신감을 느끼고 있으며 중국은 원칙 없이 실리적인 이익만을 추구하는 외교전략을 만천하에 드러냈다고 비난했다고 전했다.
- 한국이 중국에 불만을 표시한데 대해 중국의 국제문제연구소 진린보(晉林波) 연구원은 환구시보와 인터뷰에서 중국은 이번 김정일 위원장 초청으로 한·중 관계를 해칠 의사가 없다고 말하고 한국은 북·중간 고위층 교류를 일시적으로는 받아들이기 힘들 수 있지만 이것이 전화위복이 될 수 있지 않겠느냐고 반문했음.
- 또 진찬릉(金燦榮) 인민대학 국제관계학원 부원장은 중국은 북한이 우호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유일한 대국이자 중재국이어서 그 역할이 중요하다고 역설하고 김 위원장의 방중을 사전 공개하지 않는 것은 북·중 쌍방 간의 일이며 중국의 정책은 투명하고 개방적이기 때문에 한국은 중국을 책망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음.

● 고위당국자 “한·중 외교적 갈등 없어”(5/5)

- 정부 고위당국자는 5일 최근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방중과 관련, 한국과 중국 사이에 외교적 갈등이 있는 것 아니냐는 언론 보도와 관련, “한·중 간에는 외교적 갈등이 없다”고 말했다. 이 고위당국자는 “한중관계에 크게 문제 있는 것 아니냐는 시각이 있는데 이는 사실에 크게 부합하지 않는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 그는 김 위원장의 방중과 관련해 최근 이명박 대통령과 후 주석과 회담에서도 아무런 언질이 없었다는 점에서 “국민의 여론이나 언론에서는 충분히 불쾌할 수도 있다”면서 “다만, 이 문제를 정부와 관련지어 양국 간 갈등으로 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 그는 신각수 외교통상부 제1차관이 최근 장신쑨 주한 중국대사를 불러 김 위원장의 중국 방문과 관련한 정부의 입장을 설명한 것에 대해 “사안이 있을 때 주재국이 상대국 외교관을 불러 이야기하는 것은 외교에서 흔히 있는 일”이라고 설명했다.
- 고위당국자는 김 위원장과 후진타오(胡錦濤) 중국 국가주석의 정상 회담 내용에 대해 “(중국 측으로부터) 설명을 듣게 되기를 기대하고 있다”며 “통상적인 외교채널을 통해 설명이 있을 수 있는데 기다려 봐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 그는 또 ‘천안함 사건 조사결과가 나온 뒤 6자회담 프로세스를 진행하느냐’는 질문에 “우선 천안함 사건의 조사결과를 보고 그것에 따라 필요한 대처를 한 뒤 다음 행보를 한다는 게 한·미의 공통된 입장”이라며 “조사 결과가 나오면 당연히 대처 과정이 있어야 하고 필요한 조치가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 정부, 中대사 초치 유감표명..중국 냉담(5/4)

-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3일 전격 방중을 계기로 한·중관계가 난기류를 보이고 있음.
- 정부는 중국 측이 김 위원장의 방중 사실을 사전 통지해주지 않는데 대해 공식 유감을 표명하며 ‘책임 있는 역할’을 촉구하고 나섰으나 중국 정부는 냉담한 반응으로 일관하고 있어 자칫 외교적 갈등으로 비화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음.
- 현인택 통일부 장관은 이날 오후 정부 중앙청사 접견실에서 장 대사와 면담한 자리에서 “한반도 정세와 동북아 정세가 매우 다이내믹하게 전개되고 있다”며 “중국 정부의 책임 있는 역할이 어느 때보다 요구되고, 기대된다고 할 수 있다”고 말했다.
- 현 장관은 이어 “주지하다시피 우리는 천안함 사태에 직면해 있고, 금강산 관광에 대해서는 북한이 매우 비합리적이고, 비이성적인 행태를 보이고 있다”며 “한반도 정세가 매우 어렵고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는데, 중국의 책임 있는 역할이 어느 때보다 요구되고 있고, 그렇게 하기를 바란다”고 재차 강조했다.
- 현 장관의 ‘책임 있는 역할’ 언급은 천안함 사건의 진상 규명이 진행 중인 시점에 전격적으로 이뤄진 김 위원장의 중국 방문에 대해 우려의 뜻을 표한 것으로 해석되고 있음.
- 베이징(北京)의 유력 외교소식통은 이날 “중국 정부가 김 위원장의 방중과 관련해 한국 측에 사전 통보를 하지 않았다”며 “중국 정부는 예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김 위원장의 방중에 대해 미리 알려주지 않으며 떠난 다음에야 알려준다”고 말했다.
- 이에 대해 중국 외교부의 장위(姜瑜) 대변인은 이날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김 위원장의 방중 사실을 확인해 달라는 요구에 대해 “현재까지 여러분에게 제공할 새로운 정보가 없다”고 답변, 공식 확인을 거부했음.
- 장 대사는 전날 신 차관이 김 위원장의 방중사실을 사전 통지해주지 않았다며 우려를 전달하자 “알겠다. 한국 정부의 뜻을 본국 정부에 전달하겠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음.
- 장 대사는 또 현 장관이 ‘책임 있는 역할’을 언급한데 대해 연합뉴스 기자와 만난 자리에서 “중국은 책임 있는 대국으로, 늘 책임 있는 역할을 해왔다”고 말했다.
- 장 대사의 이 같은 언급들은 김정일 방중과 관련한 우리 정부의 유감과 우려 표명에 대해 냉담한 반응을 보인 것으로 외교소식통들은 평가하고 있음.
- 김정일 방중을 둘러싼 양국의 이상기류는 천안함 사건 대응과정에서의 입장차로 표면화될 가능성이 있고 6자회담 재개를 둘러싼 관련국들의 공조체제에도 부정적 영향을 끼칠 것으로 우려되고 있음.



● 소식통 “中, 韓에 김정일 방중 통보 안 해”(5/4)

- 베이징(北京)의 유력 외교소식통은 4일 “중국 정부가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방중과 관련해 한국 측에 사전 통보를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 소식통은 “중국 정부는 예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김 위원장의 방중에 대해 미리 알려주지 않으며 떠난 다음에야 알려준다”고 덧붙였다. 그는 “중국 측이 자국을 방문하는 상대국 지도자의 일정을 공개하지 않는 사례는 북한이 유일할 것”이라며 “북한 측의 요청 때문일 것”으로 추정했음.
- 이 소식통은 그러면서 “김 위원장의 방중을 사전에 통보해주시기보다는 방중을 통한 양국 간 논의 내용 파악이 더 중요한 일이 될 것”이라고 언급했음. 이런 상황 탓에 우리 정부는 김 위원장의 방중 기미를 자체적으로 파악하고 외교·안보라인을 가동해 대처했음.
- 북·중 양국의 최고지도자 방문은 북한의 노동당과 중국 공산당 차원에서 이뤄진다는 점에서 중국 외교부 측은 김 위원장의 방중과 관련해선 일체 언급을 삼가는 것으로 전해졌음.

●李대통령 “새 경제질서 만드는데 韓中 역할 해야”(5/3)

- 이명박 대통령은 3일 글로벌 경제체제 재편과 관련, “앞으로 세계 경제 위기를 막기 위한 새로운 경제질서를 만드는 데 한국과 중국이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밤 방영된 중국 관영 CCTV와의 인터뷰에서 “특히 작년 금융위기 때는 한중 금융스와프를 통해 중국이 한국에 도움을 많이 준 관계에 있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 또 “한국은 (G20 정상회의) 의장국이고 중국은 신흥국을 대표하기 때문에 새로운 금융 질서와 경제 질서를 만드는 데 주도적 역할을 해야 한다는 데 양국 간 합의가 이뤄져 있다”면서 “앞으로도 그 분야에 있어서 합의가 이뤄지리라 믿는다”고 말했다.
- 이 대통령은 2012년 여수 엑스포 개최를 언급, “우리는 수천 개의 섬이 있는 해안에서 엑스포가 열리기 때문에 연안과 바다의 기후 변화를 대비한 친환경적 엑스포라고 할 수 있겠다”며 “(상하이 엑스포와는) 성격이 조금 달라서 규모가 작으면서도 콘텐츠를 다르게 가는 방향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 이밖에 이 대통령은 어머니가 인생에 어떤 영향을 미쳤느냐는 질문에 “나에게 가장 영향을 준 사람은 우리 어머니”라며 “우리 어머니는 매우 가난하고 많은 것을 배우지는 못했지만 인간의 근본에 대해서 확실한 근본정신을 우리 자식들에게 전해줬다”고 말했다.
- 이번 인터뷰는 중국 현지시간으로 이날 오후 10시30분부터 15분간 뉴스프로그램을 통해 방영됐으며, 상하이(上海) 엑스포 한국관을 홍보하는 영상이 인터뷰에 곁들여졌음.



다. 미·중 관계

● “美, ‘김정일 방중’ 우려 中에 사전 전달”(5/5)

- 미국 정부가 천안함 사건 조사가 진행 중인 현 상황에서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중국 방문이 적절치 않다는 입장을 사전에 전달했던 것으로 5일 알려졌다. 한 외교소식통은 “미국은 천안함 사건의 와중에 김 위원장의 방중이 우려스럽고 바람직스럽지 않다는 뜻을 중국 정부에 전달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미국은 이후 김 위원장의 방중이 성사되자 납득하기 어렵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이 소식통은 이어 “중국이 국제사회에서 중요한 지위를 가진 국가로서 책임 있는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게 한·미의 공통된 인식”이라고 강조했다.
- 이와 관련, 커트 캠벨 미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는 지난달 26일 홍콩에서 열린 ‘2010 홍콩 국제 미디어 콘퍼런스’에 참석, “우리는 중국 측에 미국의 역할을 설명하고 중국이 앞으로 (결과가 나오면) 책임 있는 역할을 해줄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 또 힐러리 클린턴 미국 국무장관과 다이빙귀 중국 국무위원은 지난달 29일 전화통화를 갖고 6자회담 재개를 비롯한 동북아 정세문제에 대해 협의한 바 있음.
- 한편 우리 정부가 지난달 30~1일 이명박 대통령의 방중 직후 김 위원장의 방중과 관련한 우리 정부의 우려의 뜻을 중국 정부에 전달했다는 언론보도에 대해 정부 당국자들은 “그런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라. 미·러 관계

● 메드베데프 대통령, 6월 말 미국 방문(5/8)

-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러시아 대통령이 오는 6월 말 버락 오바마 대통령 초청으로 미국을 방문한다고 러시아 언론매체들이 크렘린 발표를 인용해 8일 보도했음. 세르게이 프리호드코 크렘린 외교보좌관은 “메드베데프 대통령이 6월 말 미국을 방문하며 당국 간 정확한 방문 일정을 조율 중”이라고 밝혔음.
- 그는 “이번 방문에서는 협력 가능한 전 분야에 걸쳐 협의가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메드베데프 대통령의 미국 방문은 취임 이후 네 번째가 됨. 취임 첫해인 2008년 11월 워싱턴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 지난해 9월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유엔 총회와 피츠버그, 그리고 지난 4월 핵 안보정상회의에 각각 참석한 바 있음.
- 양국 정상은 글로벌 경제 상황을 점검하는 한편 이란 추가 제재, 아프가니스탄 군사 협력, 이스라엘-팔레스타인 평화 협상 등 국제 이슈에 대해 협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 또 지난달 8일 체코에서 두 사람이 서명한 전략무기감축협정(START-1) 후속 협정의 양국 의회 비준 절차를 포함해 부시 정권에서 철회



된 양국 간 핵협력 협정의 재개, 러시아 국영 무기 업체에 대한 미국의 제재 해제 가능성 등에 대한 폭넓은 의견 교환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메드베데프 대통령은 현재 양국 통상 관계의 걸림돌인 ‘잭슨-베닉’ 수정안 의 철폐와 러시아의 세계무역기구(WTO) 연내 가입이 이뤄질 수 있도록 미국의 협조를 요청할 것으로 보임.

- 메드베데프 대통령은 지난달 워싱턴 방문 당시 브루킹스연구소 연설을 통해 “러시아의 WTO 가입 문제가 매우 정치화돼 있고, 착하게 굴면 WTO에 넣어주겠다는 식의 ‘당근’이 돼버렸으며 이는 옳은 것이 아니다”라며 “러시아는 추가 조건 없이, 굴욕적이지 않은 방식으로 WTO에 가입하길 원한다”라고 말했다.

● 러시아, 美와 민간 핵 협력 협정 다시 희망(5/5)

- 러시아가 미국과 민간 핵협력 협정을 다시 맺기를 희망하고 있다고 5일 러시아 관영 리아 노보스티 통신이 보도했음. 러시아 외무부 세르게이 리아브코프 차관은 전날 “우리는 오바마 행정부가 민간 차원의 원자력 이용에 관한 협력 협정을 상원에 다시 제출해 주기를 바란다”고 밝혔음. 미국은 부시 행정부 시절이던 지난 2008년 5월 러시아와 민간 핵협정을 체결했으나, 3개월 뒤 러시아가 그루지야를 침공하자 이에 대한 항의의 의미로 협정 체결을 철회한 바 있음.
- 협정에는 해체된 러시아 핵무기에서 추출한 고농축 우라늄만을 원전용 저농축 우라늄으로 전환, 미국에 팔 수 있고 양국이 자유롭게 핵 기술을 교환한다는 등의 내용이 담겨 있음. 핵 비확산 회의에 참석차 뉴욕을 방문 중인 리아브코프 차관은 “당시 미국 행정부의 결정은 협정 내용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정치적 판단에 따른 조치였다”며 “러시아는 현 행정부가 양국 관계 의제를 넓혀줄 이 문제를 재검토해 상원의 비준을 받을 수 있도록 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앞서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대통령과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지난해 7월 모스크바 정상회담 당시 핵협력 협정 재추진을 위해 양국 정부가 노력하기로 합의한 바 있음.

마. 중·러 관계

● 中 후 주석, ‘러’ 승전기념행사 참석(5/3)

- 후진타오(胡錦濤) 중국 국가주석이 오는 9일 모스크바 붉은광장에서 펼쳐지는 2차대전 승전 65주년 기념행사에 참석한다고 3일 리아 노보스티통신이 중국 외교부 발표를 인용해 보도했음. 후 주석은 당일 붉은광장에서 펼쳐지는 군사 행진을 보고,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러시아 대통령과 회동할 것으로 알려졌다.
- 러시아 정부는 이번 65주년 행사를 구소련 붕괴 이후 가장 큰 규모로 치르려고 세계 각국 지도자들을 초청했고 현재 후 주석과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 등 약 25개국 정상에 참석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알려졌음. 그러나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고든 브라운 총리는 국내 정치 일정 등을 이유로 불참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군사 행진에는 사상 처음으로 미국과 영국 등 2차 대전 당시 나치 독일에 맞선 연합군에 속했던 서방 국가 군인들이 참여할 예정이어서 이들 국가 수반의 참석 가능성이 예상됐었음.

- 또 빅토르 야누코비치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알렉산드르 루카셴코 벨라루스 대통령은 8일 열리는 독립국가연합(CIS) 비공식 정상회담에만 참석하고 바로 귀국할 것으로 알려졌다.
- 한편, 러시아의 전신인 소련은 종전 이후 매년 붉은광장에서 탱크, 장갑차, 미사일을 동원한 군사 행진을 해왔음. 구소련 붕괴 이후인 1992년부터 러시아는 무기 반입 없이 군인들의 행진만 했고, 붉은광장에 다시 전술·전략 무기가 등장한 것은 2008년부터임. 서방은 이런 군사 행진을 소련 붕괴와 함께 실추된 러시아의 군사력을 국내외에 과시하기 위한 ‘선전용’으로 보고 있음. 올해 행사에는 총 165대의 전투기와 헬기, 각종 탱크와 장갑차 등이 동원될 예정임.

바. 기타

● 대만총통 “전쟁시 미국 도움 요청 안 한다”(5/3)

- 대만은 전쟁 시 미국에 절대 도움을 요청하지 않을 것이라고 마잉주 대만 총통이 밝혔다.
- 마 총통은 지난 주말 방송 기자들에게 대만은 자립할 것이라며 중국과의 대립 위험을 무릅쓰고 미국이 대만을 지원할 의무는 없다는 뜻을 내비쳤음. 마 총통의 발언에 대해 반중국 성향인 야당의 반발이 일자 장치천(江啓臣) 대만 정부 대변인은 3일 “마 총통은 대만의 자위 결의를 언급한 것”이라며 미국은 대만 지원 여부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다고 말했다. 장 대변인은 또 중국의 반발이 불가피하지만 대만은 여전히 미국이 대만에 최신 무기를 판매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참고 1] <김정일訪中> 북중 지도부 상호방문 일지(5/3)

(베이징=연합뉴스) 홍제성 특파원 = 북한의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취임후 5번째로 3일 중국을 방문했다. 북한과 중국 양국 지도부의 상호방문 일지를 최근부터 역순으로 정리했다.

- ▲2010. 5. 3 =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 방중
- ▲2010. 4.29 = 김영남 북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방중
- ▲2009.10.27 = 최태복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비서 방중
- ▲2009.10. 4 = 원자바오(溫家寶) 중국 총리 방북
- ▲2009. 3.17 = 김영일 북한 내각 총리 방중
- ▲2008. 8. 7 =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방중
- ▲2008. 6.17 =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부주석 방북
- ▲2006. 1.10 = 김정일 국방위원장 방중
- ▲2005.10 = 후진타오(胡錦濤) 중국 국가주석 방북
- ▲2005. 3 = 박봉주 내각 총리 방중
- ▲2004.10 =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방중
- ▲2004. 4 = 김정일 국방위원장 방중
- ▲2003.10 = 우방귀(吳邦國)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무위원장 방북
- ▲2001. 9 = 장쩌민(江澤民) 국가주석 방북
- ▲2001. 1 = 김정일 국방위원장 방중
- ▲2000. 5 = 김정일 국방위원장 방중
- ▲1999. 6 =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방중
- ▲1992. 4 = 양상쿤(楊尙昆) 중국 국가주석 방북
- ▲1991.10 = 김일성 주석 방중
- ▲1991. 5 = 리펑(李鵬) 총리 방북
- ▲1990. 3 = 장쩌민 공산당 총서기 방북
- ▲1989.11 = 김일성 주석 방중
- ▲1989. 4 = 자오쯔양(趙紫陽) 공산당 총서기 방북
- ▲1988. 9 = 양상쿤 국가주석 방북
- ▲1987. 5 = 김일성 주석 방중
- ▲1985.10 = 리셴넨(李先念) 중국 국가주석 방북
- ▲1985. 5 = 후야오방(胡耀邦) 공산당 총서기 방북
- ▲1984.11 = 김일성 주석 방중
- ▲1984. 5 = 후야오방 총서기 방북
- ▲1983. 6 = 김정일 노동당 중앙위 비서 방중



- ▲1982. 9 = 김일성 주석 방중
- ▲1982. 4 = 덩샤오핑(鄧小平) 당중앙군사위 주석.후야오방 총서기
방북
- ▲1980.12 = 자오쯔양(趙紫陽) 총리 방북

(jsa@yna.co.kr)

<출처>

<http://www.yonhapnews.co.kr/politics/2010/05/03/0511000000AKR20100503065200083.HTML>

☀ 국제관계연구센터 제공